



- 4월 16일 자유행동일 낮, 기숙사 3층 린의 방 -



린 : 자 그럼--- 아직 9시인가.

린 : 부활동의 건으로 거의 모든 학생이 아침부터 외출을 한 모양이고 나도 시내로 나가볼까.

린 : (...어제는 무심코, 늦게까지 얘기를 해버렸군.)

린 : (오리발트 전하가 제공해주신 VII반 전용의 원거리 통신 회선...)

린 : (제2분교에 대한 편지도 그렇고 정말로 감사를 해도 모자를 정도야.)

린 : 우선은 역앞의 시설 정도는 전체적으로 살펴두는 편이 좋을 듯하군.

린 : 최초의 자유행동일--- 곧장 시작하도록 해볼까!

- 인연 포인트(絆ポイント)가 추가 되었습니다. -

~ [인연 포인트(絆ポイント)]에 대해서 ~

자유행동일에는 VII반 학생들이나 특정 캐릭터에게 [인연 포인트]가 할당이 됩니다. 이것은 [인연 행동 포인트(絆行動ポイント)]를 사용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그 캐릭터의 [인연 포인트]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진행되어 저녁이 되면 낮 동안 가지고 있던 인연포인트는 모두 소멸합니다. 대신에 [인연 행동 포인트]가 약간 추가되어 저녁에만 발생하는 인연이벤트를 새롭게 제공하게 됩니다.

- 엘리엇의 인물노트가 갱신. -



Check Point !!

행동 네비게이션 : 리브스의 시설들을 살펴보자.
(リーブスの施設を見て回ろう)

- ※ 기숙사 1층 남자 목욕탕의 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 ※ 책, 놀이 상점 <케네기>에 들어간다.
- ※ 리브스 성당에 들어간다.
- ※ 부티크 <라팡>에 들어간다.
- ※ 주점 <바니즈>에 들어간다.
- ※ 잡화점 <여수안>에 들어간다.
- ※ 위의 시설들을 다 둘러보면 이벤트 발생.
특별 퀘스트를 받게 된다.
- ※ 교환상 <나인바리>에 화물을 전달한다.
- ※ 라디오 방송국 <트리스타 방송>에 화물을 전달한다.
- ※ 분교 재배원에 있는 샌디에게 화물을 전달한다.
- ※ 분교의 식당에서 특별 퀘스트를 받는다.
- ※ 인연포인트를 소비했으면 분교의 브리핑 룸으로 가서 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 ※ 시간대는 자동으로 자유행동일 저녁으로 바뀐다.

※ 기숙사 1층의 남자 목욕탕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목욕탕인가... 아침 일찍 검술연습도 했었고 땀을 좀 빼볼까?)

- 목욕탕에 들어가 땀을 흘린다(風呂に入って汗を流す) 선택-

린 : (후우...)

린 : (오전부터 목욕이라니 조금 사치부리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 : 아하... 천국만 같아...

여성의 목소리 : 오전부터 목욕이라니 너무 사치부리는 걸까나...?

린 : (이 목소리는...)

린 : 저기, 토와 선배...?

여성의 목소리 : 우아앗...! 그 목소리는, 린!

린 : 네, 그쪽의 욕실과 천정으로 뚫려져 있는 모양이네요.



トワ

気になる子もいるかもだけど
士官学校の宿舎だし仕方ないかなあ。

토와 : 후우, 온탕의 공급도 포함해서 애당초 그러한 설계였던 모양이네.
 토와 : 신경 쓰는 아이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사관학교의 기숙사니까 별수 없으려나.
 린의 목소리 : 그러네요... 군대였으면 목욕도 남녀 교대제이고요.
 린의 목소리 : 하지만 이 욕실 자체는 꽤나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토와 : 아, 응, 이 기숙사는 애당초 어떤 귀족의 저택이었던 모양으로...
 토와 : 제2분교가 만들어졌을 때, 오렐리아 분교장님이 사비로 대규모 개축을 한 모양이야.
 린 : 사비로...!? 그래서 시설이 꽤나 훌륭하다고 할까...
 린 : 그리고 보니 분교장님은 백작가의 당주이기도 했었죠.
 토와의 목소리 : 응, 꽤 자산가라고 생각해.
 토와의 목소리 : 그런 의미에선 이 욕실의 구조도 분교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일지도...
 토와의 목소리 : 같은 사관학생, 남녀 간의 울타리를 되는 한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했다던가.
 린 : 으음- 가능성이 있네요...
 린 : 뭐, 저는 출신이 출신이라서 그다지 신경은 쓰이지 않지만요.
 토와 : 후훗, 제국 최고의 온천마을 유미르 출신이니까.
 토와 : 으음, 그림네. 재작년의 가을에 갔던 이후 못 갔네..
 토와 : 린 일행 VII반을 포함해 모두 함께 갔었지.
 린의 목소리 : 네, 사라교관님에 샤론씨, 안젤리카 선배에, 조르쥬 선배...
 토와 : ...크로우도 있었어.
 토와 : 엘리제와 남작님 부부에게도 매우 신세를 졌었고...
 토와 : 후훗, 정말로 그림네. 또 모두 함께 가고 싶다 할까...
 린의 목소리 : ...갈 수 있어요.
 린 : 이 분교도 막 시작한 참...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요.
 린 : ...제국 그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려고 하는 지도...
 린 :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헤쳐 나가면 분명 기회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린 : 친한 사람들과 그 온천마을에 가서 진심으로 쉴 수 있는 날이...
 토와의 목소리 : 린...
 토와 : 응----- 함께 힘내자!!



토와 : 후훗, 하마터면 오전부터 온탕에서 탈진할 뻔 했네.
토와 : 나는 학원에 갈 생각인데 린은 어떻게 할 거야?
린 : 모처럼 이니까 마을과 학원을 돌면서 학생들의 상황을 살필 생각이예요.
린 : 부활동 선택도 막바지에 다다른 거 같고요.
토와 : 그런가... 후훗, 그럼 잘 부탁해.
토와 : 아, 일단 휴일이기도 하니 린 스스로도 기분전환을 하도록 해야 해?
토와 : 그런 까닭에, 자 이거.

- 후르츠 우유를 얻었다 -



린 : 받아도 되나요? 하하, 감사합니다.
토와 : 후훗, 그럼 오후에 브리핑룸에서 봐!

- 목욕탕에 들어간 것으로 린의 CP가 100 상승했다. -
- 토와와 인연이 깊어졌다! -

※ 책, 놀이도구 <카네기 서점(カーネギ書房)>에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



린 : <카네기 서점>... 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취급하고 있는 모양이군.
 린 : 하하, 뭐랄까 취향이 괜찮은 가게인걸.

서점에서는 각종 서적 아이템이나 액세서리 등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적은 구입하는 것으로 **서적 노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며
 언제든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Side Event !!

※ 카운터에 있는 레이첼과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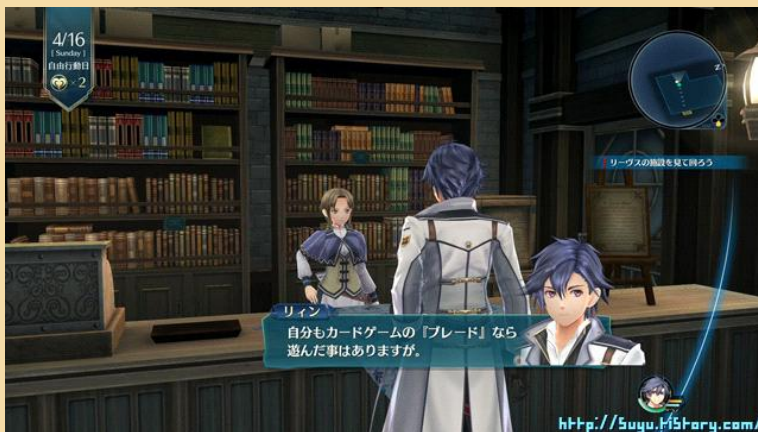
레이첼 : 어머니, 소문의 교관님이잖아. 좋은 아침!
 레이첼 : 우리 가게에 교재라도 찾으러 와준 걸까?
 레이첼 : 그럼 오늘 아침에 도착한 이 물건이 추천 상품이야!
 린 : 하하, 감사합니다...
 린 : 가 아니라, 그 상자는 대체 뭔가요...?
 레이첼 : 이런, 실례. 이건 [보드 게임]이었던.
 레이첼 :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작이 발매해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건네주었네!
 린 : 하하하...

린 : 보드 게임... 분명 체스같은 대전 게임이었나요.
레이첼 : 맞아, 제국에선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체스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어.



레이첼 : 우리 가게는 그 외에도 카드 게임이나
추리게임 등도 제대로 구비하고 있다가구~!
린 : 충실한 라인업이네요.
린 : 저도 카드게임, [블레이드]라면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레이첼 : 어머니, 괜찮네, 나도 블레이드라면 자주 했었어.
레이첼 : 맞아, 맞아. 최근에는 어떤 카드 게임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가르쳐 주도록 할게!
린 : 하하, 감사합니다.
린 : (헌데 이 진지함... 아무래도 가게주인의 취미인가 보군.)
레이첼 : 그럼 친해진 기념으로 이걸 줄게!

- 잔혹한 에드거(人でなしのエドガ) 1권을 입수. -



레이첼 : 최근에 발매한 픽션인데 꽤나 재미가 있단 말이지.
레이첼 : 교관님도 괜찮다면 한번 읽어봐!
린 : 하하,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린 : (소설인가... 좋은 휴식거리가 될지도 모르겠군.)

레이첼과 다시 대화.

레이첼 : 톨즈 사관 학원, 제2분교... 명문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우등생만 있는 것만은 아닌 모양이야?
레이첼 : 뭐, 고등학교 상당의 참고서나 교재 같은 것도
들여다 놓았으니까 괜찮다면 보고가.
레이첼 : 나도 책가게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지원을 할 생각이니까!
레이첼 : 그리고 내 취미로 여러 가지 게임을 갖추어 놓았어.
이쪽도 잔뜩 보고 가줘~!

※ 리브스 예배당에 들어서면 이벤트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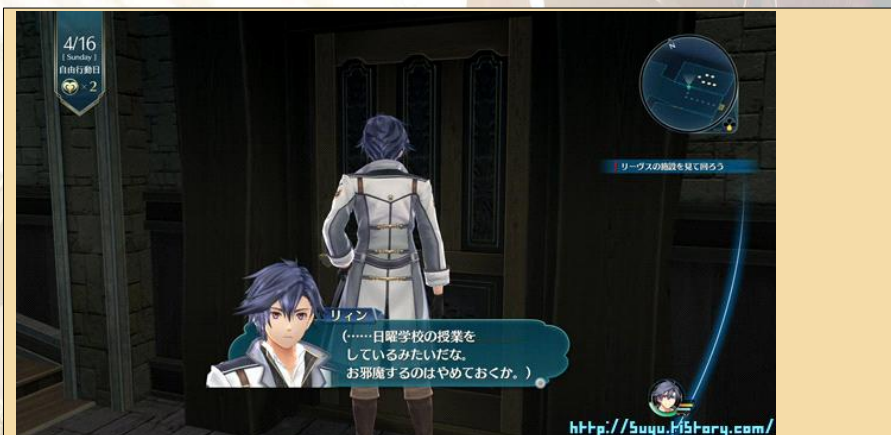


린 : 리브스 예배당… 트리스타에 있던 예배당과 거의 동일한 규모인 듯하네.
린 : 착임이후, 바빠서 그다지 들르지 못했지만…잠시 기도라도 하고 갈까?



Side Event !!

예배당 오른쪽 예배실 문을 조사.



상냥한 듯한 여성의 목소리 : 후후, 그럼 다음 페이지를 읽어볼까요.
 상냥한 듯한 여성의 목소리 : 여러분도 함께 낭독해보기로 해요.
 아이들의 목소리 : 네!
 린 : (... 일요일학교의 수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
 방해하는 것은 삼가도록 할까.)

예배당 안쪽의 헨리 교구장과 대화.



헨리 교구장 : 어라, 당신이었나요.
 예배를 하러 오는 것은 처음이군요.
 린 : 죄,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쫓기다보니...
 헨리 교구장 : 후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휴식도 필요할 테지요.
 헨리 교구장 : 시점을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몰두 하지 않도록 하시길.
 린 : 조언 감사드립니다.
 린 : (무심코 멀리했었지만 가끔은 예배를 하러 오지 않으면.)

다시 대화.

헨리 교구장 : 후후, 올해 봄은 꽤나 시골벽적해졌네요.
 헨리 교구장 : 톨즈의 학생들을 이 마을에 맞아들이게 된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쁨입니다.
 헨리 교구장 :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도 여신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 부띠크 <라팡>에 들어서면 이벤트 발생.



린 : 부띠크 <라팡>… 아무래도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옷가게인 모양이군.
린 : 남녀용의 의복은 물론 각종 잡화에 인형,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 듯한데…
린 : ---흠, 여기서 엘리제에게 줄 선물을 봐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군.

부띠크에선 옷, 구두, 액세서리, 선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갖가지 가게에서 팔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캐릭터의
인연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엘리제의 인물 노트 갱신. -



Side Event !!

부띠크 카운터의 마커스와 대화.

마커스 : 군 관계의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들었을 때는
불안감 밖에 없었는데.

마커스 : 인사하러 온 교관님은 왠지 작은
몸집의 귀여운 여성이었고…
무서워 할 필요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

마커스 :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렇게나 가게에 와주다니 기쁜 걸.

마커스 : 하하… 내가 만든 옷,
마음에 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다시 대화.



마커스 : 우리는 오리지날 복도 판매하고 있어.
마커스 : 하하… 천천히 보도록 해.

※ 여관주점 <바니즈>에 들어서면 이벤트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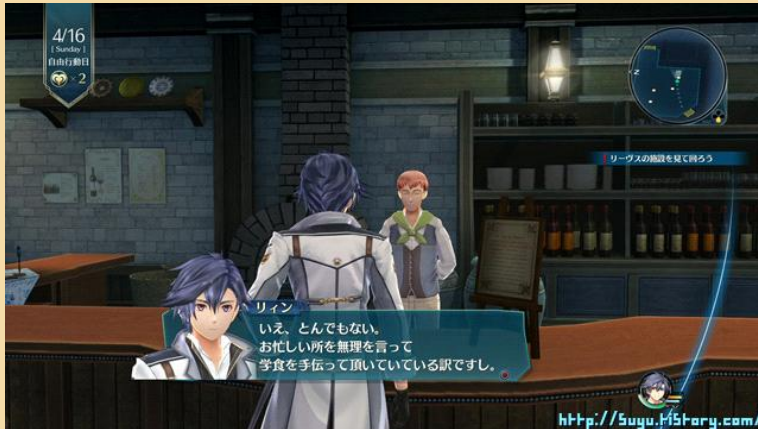
린 : 여관주점 <바니즈 > … 낮에 들르는 것은 처음이지만
활기가 있고 분위기도 좋은 가게란 말이지.
린 : 흠, 모처럼이니 뭔가 주문을 해서 먹고 가는 것도 괜찮겠군.

여관 및 주점에선 휴식으로 HP, EP, CP, 어설트 포인트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가게의 추천 요리를 먹는 것으로 회복을 하면서
요리의 레시피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Side Event !!

여관 카운터의 여관주인 바니와 대화.



바니 : 이거, 린 교관님 아니십니까...

바니 : 언제나 딸 지나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린 : 아니요, 천만의 말씀을. 바쁘신 시간대에 무리해서
학교식당의 일을 도와주고 계신 건데요.

린 : 학원으로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니 : 하하, 지나의 일손이 비는 낮 동안만이라는 게
저희로써 죄송할 따름입니다만...

바니 : 학원은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들었고요.
이 정도의 일은 하게 해주십시오.

바니 : 아무래도 숙박집 딸로 자라다 보니
뭔가 실례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이후로도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린 : 하하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린 : (여관주점의 주인아저씨... 친절하고 정말 사람 좋은 분이시군.)

린 : (게다가 이 가게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 모양이야.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다시 대화.

바니 : 학원의 설립이 시작됐을 때에는 마을 안이 들썩했습니다만...

바니 : 듣자니 계획자체가 급작스런 일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바니 : 낮동안뿐이라 죄송스럽지만 지나를 잘 부탁드립니다.

바니 : 그리고 저희 일손은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지도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 식재료, 잡화 상점 여수안에 들어서면 이벤트 발생.



린 : <여수안>인가... 동방계 식료품이나 잡화가 풍부한 듯한데...
라드 할아범 : 어이, 거기 젊은이 잠시 이리와 얘기하지 않겠는가?
린 : 저, 저 말인가요...?
린 : 저기...
라드 할아범 : 와하하, 갑자기 말을 걸어서 미안하게 됐군.
라드 할아범 : 너, 새로 만들어진 톨즈 제2분교의 교관이이지?
라드 할아범 : 그것도 --영웅으로 이름 높은 <젯빛 기사>님이잖아.
린 : 하하... 네, 뭐.
라드 할아범 : ㅎㅎ... 와하하! 역시 아직 젊은데도 대단한 남자로구만.
라드 할아범 : 그럼 역시 이걸 건네주도록 하지.
라드 할아범 : 자--- 친해진 기념으로 가져가도록 하게.

- 커스텀 룯드(カスタムロード)를 입수 -

린 : 이걸... 낚싯대인가요.
린 : 그것도 레이클로드사의 최신품인 게--
라드 할아범 : 워야, 설마 너도 낚시꾼이었던 거냐?
린 : 네, 학교 친구가 <낙황클럽(釣皇俱樂部)>에 들어가 있던 터라 그 인연으로.
라드 할아범 : 흠, 레이클로드사가 자랑하는 프로앵글러집단 <낙황클럽>이란 말이지.
라드 할아범 : 덧붙여 나는 옛날 제무리아 대륙을 여행하고 다녀서 말야.
라드 할아범 : 그 때에 알게 된 인물과의 인연으로 리벨에 본부를 두는 <낙공사단(釣公師団)>에 소속되어 있어.
린 : <낙공사단>... 말인가요.
라드 할아범 : 뭐, <낙황클럽>과는 라이벌 같은 거야.
라드 할아범 : 옛날에는 서로 물고 뜯어대는 사이였지만... 지금에선 절차탁마하는 사이지.
라드 할아범 : 너에게 넘긴 낚시도구도 최근 레이클로드사에서 넘겨받은 물건이야.
린 : 그랬었군요...



린 :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물건을 거저 받을 순 없다고 할까...

라드 할아범 : 뭘 괜찮아. 나는 낚시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인정할 만한 자에게 넘긴 것뿐이야.

라드 할아범 : 오히려 잔뜩 낚시를 해서 학생들에게도 낚시를 퍼뜨려주면 좋겠군.

린 : 그렇군요... 분명 낚시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린 : 그럼 죄송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드 할아범 : 왓핫핫, 솔직해서 좋군.

라드 할아범 : 그리고 이것도 넘겨돌까.

- 낚시 수첩(釣り手帳)과 미끼(釣り餌)x5를 입수 -

라드 할아범 : 수첩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보여주러 오도록 해.

라드 할아범 : 낚은 물고기의 종류가 일정 수를 넘어서면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거든.

라드 할아범 : 여기 리브스에도 좋은 낚시 포인트가 있으니까 잔뜩잔뜩 잡아 올리면 될 거야.

린 : 과연, 알겠습니다.

린 : 그건 그렇고 하나에서 열까지 죄송할 따름이네요.

라드 할아범 : 와핫핫, 뭘. 교관님께서도 가끔은 휴식을 하라구.

라드 할아범 : 그리고 우리가게에 물고기를 가지고 와주면 여러 가지 경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니 말야.

라드 할아범 : 모쪼록 이후도 여기 <여수안>을 애용해줘.

린 : 하하, 알겠습니다.

-[낚시 노트]가 해방. -

물 근처에 있는 낚시 포인트에서 **오버튼**으로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낚은 물고기 등의 정보는 **낚시 노트**를 통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대화.

라드 할아범 : 마을의 동쪽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을 거야.

라드 할아범 : 그건 북쪽의 숲 쪽에서 흘러오는 것이라서 말야. 꽤나 활력이
 좋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을 거야.
 라드 할아범 :교관님도 바쁘기만 해서 숨이 막힐 테지.
 라드 할아범 :가끔은 낚시 같은 것을 즐기라고. 와핫핫!

※ 주요 시설들을 전부 둘러보면 퀘스트 이벤트 발생.

V Quest Event !!

발생 시기	리브스 시내의 주요시설 둘러보기를 마친 시점
발생 기간	필수(기간 내 강제완수)
의뢰자	배달원 짐
기타 사항	



린 : 후우, 이걸로 눈에 띄는 시설들은 전부 돌아봤을려나?
 남성의 목소리 : 대, 대체 어떻게 하면...
 린 : (저 복장은 배달원인 듯한데... 일단 안경을 써둘까.)
 린 : 저기... 뭔가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배달원 짐 : 문제랄까 난처하다 할까...
 배달원 짐 : 저는 어느 운송회사의 신입임다만...
 배달원 짐 : 배달 장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장소가 섞여있어서요...
 배달원 짐 : 일단 톨즈 제2분교라는 것은 대체 어디 임까?
 린 : 뭐... 분명 막 신설된 참인 곳이니깐요.
 배달원 짐 : 그 이외에도 2장소. 불명확한 곳이 있습다.
 배달원 짐 : 그 외에도 화물들이 있는데 이 모양으로 찾아만 다니다간
 아무래도 다음 일 시간에는...
 배달원 짐 : 이런 소릴 할 시간에도 시간이...
 린 : 저기... 괜찮으시다면 도와드릴까요?
 린 : 실은 저는 톨즈 제2분교의 교관이기도 하거든요.
 배달원 짐 : 그, 그러셨습니까...
 배달원 짐 : 도와주신다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린 : 하하, 그럼 결정이네요.

린 : 덧붙여 배달 장소가 불명확한 화물은 전부 3개있다고 하셨는데.

린 : 분교 이외에는 어디인가요?

배달원 짐 : 그러니까 말임다…



배달원 짐 : 1곳은 교환상점 <나인바리>, 또 한곳이 라디오 방송국<트리스타 방송>임다.

배달원 짐 : 둘 다 최근 생긴 것인지 처음 들은 이름으로…

배달원 짐 : 아, 덧붙여 분교 쪽은 샌디라는 사람이 수취인임다.

린 : 과연. 그럼 그 3곳은 제가 맡도록 하지요.

린 : (헌데 <트리스타 방송>인가…여러 일이 있던 모양인데, 여기서 그 이름을 듣게 될 줄이야.)

린 : (샌디는… 기숙사에 없었으니까 우선은 분교를 찾아볼까.)

린 : (교환 상점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든 될 범위일 테지.)

배달원 짐 : 일단은 이게 화물임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 배달물을 받았다 -

린 : 확실히 받았습니다.

배달원 짐 : 자 그럼---저도 다른 배달을 하러 가지 않으면.

배달원 짐 : 저기, 수취확인도 있으니 배달이 끝나면

다시 이 역 앞에서 합류하는 방식으로 괜찮겠습니까?

린 :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 퀘스트 [화물의 배달대행(貨物の配達代行)]을 개시! -

- 퀘스트 노트(クエストノート)가 해금 되었습니다 -

퀘스트 노트에는 **각종의뢰(퀘스트)의 경과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집니다.
[필수(必須)] 마크가 붙은 퀘스트는 **키퀘스트**입니다. 모든 키퀘스트를 달성하는 것으로 **메인스토리가 진행**되어집니다.

임의 퀘스트 중에 기간이 [짧음(短)]인 것은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면 달성할 수가 없게** 되므로 주의 하여 주십시오.

- 버튼의 이동메뉴로 분교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교환상점 <나인바리> 앞의 아기 강아지와 대화.



아기 강아지 : 크응...?

린 : 어라, 이런 곳에 아기 강아지가 있네.

린 : 이 가게의 개 인건가...?

※ 교환 상점 <나인바리> 안에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



린 : 화물의 배달 장소 중의 하나... 여기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린 : 그건 그렇고 이 가게는... (꽤나 어두운 느낌으로군.)

소녀의 목소리 : 으음- 이상한데.

소녀의 목소리 : 엄마가 보내준 RPG, 여기에 두었던 것 같은데 말야-.

소녀의 목소리 : 아직 이사용 컨테이너 안인가-?

린 : (왜, 왠지 위험한 단어가 들린 듯한 기분이 드는데...)

머리띠의 소녀 : 응, 손님인가-?



진고 : 교환상점<나인바리>에 잘 왔군-

진고 : 탄환이나? 약이나? 뭐든지 준비해줄 테니까-

진고 : 그래서 용건은 뭐냐?

린 : 아아, 실은 택배가 있어서... 이거인데.(흠... 꽤 무거운 걸)

- 사정을 설명하면서 진고에게 배달물을 넘겼다. -

진고 : 오- 이걸 공식 루트로 부탁했던 RF의 건 유닛트인가-.

진고 : 꽤나 일처리가 빠르잖아-.

린 : ("공식"이라는 것은 "비공식"도 있다는 건가...?)

린 : 그건 그렇고 이 가게는 대체... "교환성점"이라는 것 같은데 대체 뭐를 취급하고 있는 거지?

진고 : 음-? 물건인 게 당연하잖아. 브로커니까 말야-.

진고 : 손님... 어디보자...

진고 : 그 나름대로 사선(死線)을 헤치고 온 듯하고 일단 합격이야-.

"비공식"물건도 팔아주지.

진고 : 그러고-, 때먹지 않고 착실히 한다면 그 후엔 무기등도 팔지 말란 법도 없다고-?

린 : (역시 너무 수상스러운데...)

린 : 저기, 일단 가게 주인을 불러주겠어? 일단 얘기를 들어 두고 싶은데...

진고 : 원 소리 하는 거냐, 가게 주인은 진고라구?

뭐, 본점은 크로스벨에 있으니까 여기는 지점이라는 게 되겠지만-.

진고 : 것보다 진고는 벌써 12이라고, 너무 알보지 말리고--!

린 : 그, 그건... 왠지 미안하게 됐군.

린 : (보아하니 암흑 루트에 근간을 둔 브로커라고 해야 하나...?)

린 : (...어찌됐던 간에 이후로도 자주 상태를 보러 오는 편이 좋을 지도 몰라.)

- [교환상점(交換屋)]을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

교환상점에서는 특정 아이템을 보다 높은 가격의 아이템이나 희귀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스토리 진행에서 놓친 아이템 등이 [발굴품(掘り出し物)]에 진열되기도 하므로 가끔 둘러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대화.



린 : 그리고 보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린 : 밖에 아기강아지가 지키고 있던데… 역시 네가 기르는 거야?

진고 : 응-? “켈베로스” 말이야-?

린 : 케, 켈베로스?(굉장한 이름이네…)

진고 : 그 녀석의 자질을 알아채다니 손님도 꽤 하는군-.

진고 : 이 마을에 오기 약간 전에 쫓았는데 말야-.

진고 : 진고, 한 눈에 알았다구. 저건 장래에 분명 최강의 수렵견이 될 거야.

진고 : 뭐, 손님도 즐거운 맘으로 기다리라고.

린 : …일단은…

린 :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해.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니.

진고 : 으음-? 이상한 손님이네-..

진고 : 뭐, 재고처분이 곤란해지면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겠네-.

린 : (그런 의미가 아닌데… 후우, 일단 그냥 넘어가 둘까…)

다시 대화.

진고 : 손님, 조금 유별난걸-.

진고 : 뭐, 암튼 뭐든 사가, “비공식”물품도 팔아줄게-.

린 : (뭐 당분간 상태를 보러 와야 겠군…)

※ S품의 눈물을 100미라에 구입



진고 : 자, 가져가-

진고 : 하지만 막 들어온 이 녀석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손님도 꽤 하는 걸.

린 : 하하...설마 값어치 있는 물건인 건가?

진고 : 뭐, 그렇지. 거의 수량이 없어서 우리가게도 취급수가 적어-

진고 : 재고도 1개 남았으니 이쪽은 가격올릴 테니 갖고 싶으면 미라를 모아서 오라고.

린 : 이런, 이런, 장사 수완이 대단한 걸.

린 : (하지만 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건가...하하, 마음 내킬 때마다 살펴보도록 할까.)

※ 라디오방송국 <트리스타 방송>에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



린 : (<트리스타 방송>... 설마 이쪽에 와있었다니.)

린 : (본교의 개혁으로 트리스타에서의 보도활동이 규제되었다는 것은 들었지만...)
린 : (그리고 보니 라디오 방송국에 입사한 그 녀석은---)



청년의 목소리 : 후후...린. 들려준 모양이네.
린 : 옛...
린 : 뭉크...!?
선바이저의 청년 : 하하, 틈을 봐서 말을 건네 볼까 했었는데 네 쪽에서 먼저 찾아와주다니.
뭉크 : 잘 왔어. 이름뿐인 트리스타 방송국에.
뭉크 : 2개월만이네 린.
뭉크 : 흠, 앉아있으면 차라도 내주었을 텐데.
뭉크 :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 무슨 불일이야?
린 : 아아, 실은...

-사정을 설명하고 뭉크에게 배달물을 전했다. -

뭉크 : 후후, 그렇군.
뭉크 : 린도 여전히 사람이 착하다, 라고 할까...
뭉크 : 정말로 라디오의 소재로 부족함이 없다니까.
린 : 하하, 그렇게 말하는 뭉크도 여전히한 걸.
린 : 덧붙여 그 화물은...
뭉크 : 아아, 이것은 라디오국의 녹음에 쓰는 기재의 부품이야.
뭉크 : 아무래도 자금과 일손이 부족해서 간단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고 있어.
린 : 그런가... 어려모로 고생이 많겠구나.
린 : 그런데 라디오의 영업응모 장인이 지금에선 디렉터인가..
린 : 꽤나 일 열심히인 모양이야?
뭉크 : 후후, 뭐 그렇지.
뭉크 : 방송의 홍보선전은 꽤나 힘들긴 하지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린 : 그리고... 트리스타에서는 완전히 철수한 게 되는 거야?
뭉크 : 뭐, 그렇지. 일단 건물 자체는 남아있지만.
뭉크 : 각 방면에서의 압력이 매년 심해지고 있다랄까...
뭉크 : ---어쨌든 린이랑 같은 마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기뻐.
린 : 응, 나도 같은 기분이야.
뭉크 : 게다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린 : 뭐야, 수상쩍을 만큼 말을 아끼는 걸.
몽크 : 후후후, 뭐 이정도의 일이니까 말야.



몽크 : 첫 번째는----이 배달이 끝나면 다시금 예배당을 들리길 바라.
몽크 : 분명 재미있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린 : 아, 응...
린 : (만남이라는 것은 설마... 아니, 그럴 리가.)
몽크 :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밤, 트리스타 방송에서 놀랄만한 방송이 시작할 거야.
몽크 : 시간은 오후 9시부터-- 꼭 들어주길 바라.
린 : ---하하, 알겠어. 오늘 밤은 반드시 들도록 할게.
몽크 : 뭐, 일단은 이정도 일려나.
몽크 : 이래저래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해.
린 : 아니, 오히려 경황이 없던 터라 미안해.
린 : 그럼 또 보자, 몽크
몽크 : 후후후, 그래, 린.
몽크 : 맞아, 내 ARCUS의 연락처는---

- 그 후, 린과 몽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서 헤어졌다. -
- 몽크의 인물 노트 갱신. -

다시 대화.

몽크 : 오늘 밤, 트리스타 방송에서 놀랄만한 방송이 시작돼.
몽크 :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린도 꼭 들어봐!!

※ 분교 재배원에 있는 샌디와 대화.

샌디 : 으음, 모처럼의 원예 공간인데 이대로는 조금 아깝네.
샌디 : 좋아, 그렇다면 부활동의 일환으로 여기를 정비해 볼까나!
샌디 : 앗, 린 교관님!
린 : 부활동의 일환인가... 그러고 보니 티타와 함께 요리연구회를 만들었었지.
샌디 : 네, 그래서 이곳에서 꽃 이외에 야채나 과일 등도 재배해볼까 생각을 해서요.

린 : 하하, 그렇군. 그거 좋은 생각인 걸.
 샌디 : 에헤헤, 린 교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샌디 : 덧붙여 오늘 아침에 전술과의 프레디군도
 요리연구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었어요.
 샌디 : 오늘 저녁에 시험 삼아서 요리를 선보여주기로 했어요.
 린 : 헤에, 그거 기쁜 소리로군.
 린 : 어찌됐건 순조로워 보여서 다행이야.
 린 : 앞으로도 응원할 테니 모쪼록 힘을 내길 바라.
 샌디 : 네 정말 고맙습니다!
 린 : 그리고 보니... 깜빡 잊을 뻔했군.
 샌디 : 저기... 왜 그러시나요?
 린 : 아, 실은 샌디에게 건네야 할 물건이 있어서 말야.

- 사정을 설명하면서 샌디에게 배달물을 건넸다. -



샌디 : 아하하, 그랬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샌디 : 그건 그렇고 이렇게나 빨리 도착하다니...
 샌디 : 모처럼이니 당장 밭 정리를 시작해볼까요!
 린 : 흠, 그 화물은 뭔가 농기구라는 건가.
 샌디 : 에헤헤, 네. 실은 이 장소는 일찍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샌디 : 집에서 쓰던 삽이나 원예용 가위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린 : 하하, 그렇군.

다시 대화.

샌디 : 농기구도 도착했으니 곧장 밭 정리를 시작해볼까요!
 샌디 : 프레디군도 말하긴 했지만 이곳의 토양은 매우 비옥한 거 같아요.
 샌디 : 지켜봐주세요! 분명 맛있는 것들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해요!

※ 모든 배달물을 배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 자 그럼, 이걸로 모든 배달물을 배달완료 한 건가.)
 린 : (슬슬 역 앞으로 돌아가볼까.)

※ 역 앞에 있는 배달원 짐과 대화.

린 : 죄송합니다. 그 쪽은 이미 끝마치셨군요.
배달원 짐 :아니요, 제 쪽도 막 방금 끝마친 참임다.
배달원 짐 :아무래도 화물은 무사히 건네준 모양이심다.
린 : 네, 전표를 건네드릴게요.

- 짐에게 전표를 건넸다 -



배달원 짐 : 네, 맞네요...
배달원 짐 : ---이야, 덕분에 정말로 도움이 됐습다.
배달원 짐 :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다.
린 : 하하, 뭐, 새로운 주소가 이렇게까지 겹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문 일이겠지만요.
린 : 그건 그렇고 생각했던 거 보다 빠르게 도착했다고 평판이 높더군요.
린 : 뭔가 비결이라도 있는 건가요?
배달원 짐 : 네, 뭐니 해도 저희는 화물의 운반에 소형 비행선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니까 말임다.
린 : 그랬었군요...
린 : 민간에서 비행선을 다루고 있다니 신기한 일이네요.
배달원 짐 : 후후, 뭐 그게 저희 전매특허이니깐요.
배달원 짐 : "가장 빠른 속도로, 전해드립니다, 진심을"---
배달원 짐 : 모쪼록 이후에도 <카푸아 특급편>을 잘 부탁드립니다!
린 : 하하, 그렇군요.
린 : <카푸아 특급편>인가요. 이번에 화물을 보낼 때에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다.
배달원 짐 : 덧붙여서 말임니다만... 당신은 그 유명한 <젯 빛 기사>맞습까?
린 : 하하, 역시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면 알아차릴려나요.
배달원 짐 : 네, 뭐. 그런 분이 교관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다만.
배달원 짐 : 이런, 이래저래 하는 동안에 다음 현장으로 향할 시간이---
배달원 짐 : 아무튼,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다.
린 : 하하, 천만의 말씀을.

- 퀘스트 [화물의 배달대행] 달성! -
- 보수로 브레이브 시드(ブレイブシード)를 입수 -

~ [AP와 교관 랭크(教官ランク)]에 관해서 ~

게임 중에 적절한 판단이나 행동을 취하거나 퀘스트를 달성하는 것으로 AP(아카데미 포인트)가 입수 가능합니다. 퀘스트 보고 시에 AP가 일정치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 교관 랭크가 상승하고 귀중한 특전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 퀘스트 [화물의 배달의뢰]를 완수 하면 이벤트 발생.

린 : 그리고 보니... 몽크에게서 배달 일이 끝나면 예배당에 가보라고 들었었지.
린 : 뭐, 일단은 가보도록 할까.

Quest Event !!

발생 시기	짧음(短)
발생 기간	4월 16일 당일, 분교로 이동이 가능한 시점
의뢰자	지나(ジナ)
기타 사항	

※ 분교 식당에 있는 지나와 대화를 하면 이벤트 발생.



지나 : 으음, 어쩐다... 아직 조금이라면 남아 있긴 한데...
지나 : 하지만 언제 배가 고프는 학생들이 올지...
린 : 지나씨, 무슨 일 있나요?
지나 : 앗, 린 교관님.

지나 : 실은 요리에 쓸 향신료가 남은 것이 얼마 없어서…
 지나 : 하아, 실수예요… 휴일인데도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이 오다니…
 린 : 하하, <자유행동일>은 일반적인 휴일이랑은 조금 다르니까요.
 린 : 이후는 부항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고 학교식당도 꽤나 붐빌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 : 그, 그랬군요. 착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지나 : 어찌죠… 이 페이스대로라면 저녁에는 완전히 떨어지고 말거예요.
 지나 : 그렇다고 이곳을 비워둘 수는…
 린 : (그녀에겐 학교 시설을 돕게 하는 입장이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 도우미를 자청한다(手伝いを申し出る)를 선택 -

린 : 괜찮다면 뭔가 도와드릴까요?
 린 : 때마침 순찰을 다니는 중이라 어딘가에서 가져오기만 하는 거라면 가능하고요.
 지나 : 정말인가요!? 다, 다행이다~!
 지나 : 그럼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지나 : 향신료는 [팔각(ハッカク)]이라는 조금 보기 드문 것인데요…
 지나 : 저희 가게에서도 쓰고 있는 것이예요. 여관주점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하면 나누어 주실 거예요.
 린 : 알겠습니다. 들려보도록 하지요.

- 퀘스트 [향신료의 조달(香辛料の調達)]을 개시! -

다시 대화.

지나 : 학교식당에서 만드는 스프는 가게의 메뉴와 같은데요…
 지나 : [팔각]이란 향신료가 필수불가결이예요.
 지나 : 주점에 있는 아버지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 여관주점 <바니즈>의 카운터에 있는 바니와 대화.



린 : 죄송합니다, 잠시 괜찮으신가요?
 바니 : 이런<갯빛 기사>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니 : 오늘은 뭘로 하실 건가요?

린 : 하하, 실은 요리의 주문이 아니라...

- 바니에게 지나에게 부탁받은 향신료 [팔각]을 가지러 왔다고 설명을 했다.

바니 : 이런, 이런. 번거롭게 수고를 끼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니 : 금방 건네 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바니 : 어디보다 [팔각]은...

바니 :

린 : 저기, 바니씨?

바니 : 죄, 죄송합니다. 저희도 재고가 떨어진 것 같네요.

바니 : 그리고 보니 오늘 아침부터 학생들이 잔뜩 와서
줄어드는 게 빠르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디만...

린 : 그, 그렇습니까.(마을에서도 같은 트러블이 생겼을 줄이야...)

린 : 저기, 그 외에 입수 가능한 장소로 짐작 가는 곳은 없나요?

바니 : 네, 건너편의 <여수안>에 가면 확실하게 입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니 : 하지만 기사님에게 그런 일을 부탁드릴 수는...

린 : 하하,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오면 이왕 하는 김이고요.

바니 : 그, 그렇습니까.

바니 : 그럼... 매우 죄송하지만.

린 : 네, <여수안>을 방문해보겠습니다.

※ 잡화점 <여수안>의 카운터에 있는 라드 할아범과 대화.



라드 할아범 : 오우, 교관님 아니신가. 무슨 일이지?

린 : 네, 실은 [팔각]이라는 향신료를 찾고 있어서...

- 라드 할아범에게 간단하게 사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

라드 할아범 : 와하하, 그렇군! 그거 고생했군 그래.

라드 할아범 : [팔각]이라면 물론 있지.

라드 할아범 : 이건 동방유래의 향신료라서 말야. 내가 리브스에 가져와서
퍼뜨린 것 중에 하나란 말이지.

린 : 그랬었군요... 저도 들어본 적은 있었습디만.

라드 할아범 : 스프의 숨겨진 맛에도 좋고 혈액의 흐름에 좋다고도 일컬어져
약으로도 쓰인다구.

라드 할아범 : 우리집엔 잔뜩 비축해 두었으니 이걸 가지고 가.

- [팔각]을 2꾸러미 받았다 -

린 : 고맙습니다.

린 : 하나는 학교식당, 또 하나는 주점의 분량이군요.

라드 할아범 : 와하하, 그런 셈이지. 미안하지만 전해주게나!

- 린은 일단 건너편의 여관주점에 건네주고
그 후에 식당으로 향했다. -



지나 : 그랬었군요… 수고를 끼쳤네요.

린 : 하하,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사양 말고 사용해주세요.

- 지나에게 향신료 꾸러미를 건넸다. -

지나 : 하아, 덕분에 살았어요~… 이걸로 다시 요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지나 : 언제 바닥이 보일까 신경이 쓰여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나 : 찾아오신 손님에게 요리를 내드리지 못하다니 정말로 죄송한 일이니까요.

린 : (하하… 여관주점의 인간으로서 매우 큰일인 모양이군.)

린 : 학생들은 한창 먹을 때의 아이들이 많은 편이고

앞으로는 넉넉하게 주문을 해놓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나 : 네, 식당 담당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 맞아, 교관님. 답례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걸…

- 정령향(精靈香)을 입수 -

린 :이건…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지나 : 네, 조그만 감사의 표시이니까요.

지나 : 교관님,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린 : 하하, 저희야말로. 이후로도 학교식당을 잘 부탁드립니다.

- 퀘스트 [향신료의 조달]을 달성! -

다시 대화.

지나 : 학교식당을 위탁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도 아직 멀었네요.

지나 : 다음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재료발주를 하자고 생각해요.

지나 : 교관님,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Side Event !!

분교 기숙사 입구 부근의 화단에 있는 몰가나 부인과 대화.



몰가나 부인 : 어머니, 교관님. 좋은 아침이에요.

린 :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몰가나 부인 : 후후, 리브스의 풀이나 꽃은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로요.

몰가나 부인 : 라이노의 꽃은 슬슬 질 때지만
신록의 계절은 이제부터예요.

몰가나 부인 : 교관님도 가끔은 발을 멈추고 예뻐해 주세요.

린 : 하하,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대화.

몰가나 부인 : 후후, 마을의 풀과 꽃은 모두 제 아이와도 같아요.

몰가나 부인 : 이제부터는 신록의 계절...

몰가나 부인 : 교관님도 가끔 발을 멈추고 귀여워 해주세요.



Side Event !!

리브스 촌장 저택에 있는 하독 촌장과 대화.



하독 촌장 : 오오, 슈바르처 교관님 아니십니까!

린 : 하독 촌장님, 2주만인가요.

린 : 리브스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모로 많은 폐를 끼치고 있네요.

하독 촌장 : 아니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길.

하독 촌장 : 당초는 군의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야 진정이 되는 듯하고요.

하독 촌장 : 부디 이후에도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를 찾아 주십시오.

하독 촌장 : 가능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 : 하하,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마음이 든든하네요.

린 : 이후로도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대화.

하독 촌장 : 촌장이라고 해도 작은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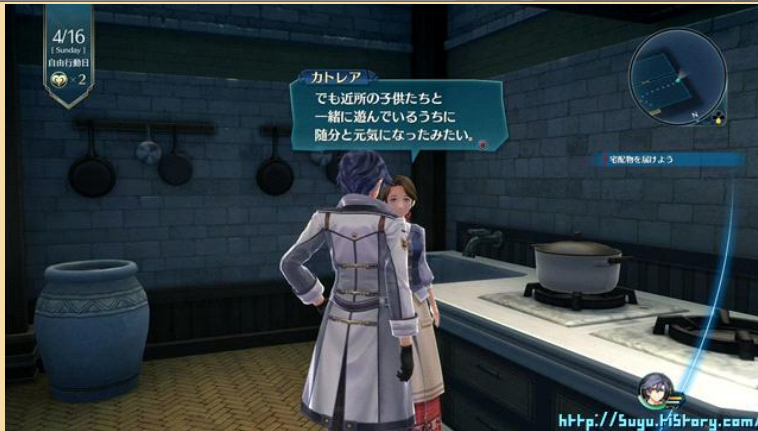
청소나 잡일하는 것이 대부분인 일이라서 말이죠.

하독 촌장 : 하하, 모쪼록 이후에도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주세요.



Side Event !!

※ 리브스 민가의 카트레아와 대화.
(집 안에 - [토마토니오 전기 상권]- 입수 가능)



카트레아 : 우리 알민은 몸이 허약해.
 카트레아 : 하지만 근처의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사이에
 꽤 건강해 진 모양이야.
 카트레아 : 후훗, 잭, 톰 그리고 세릴에게는 감사해야 겠는걸.

다시 대화.

카트레아 : 알민은 일요학교에 가있어.
 카트레아 : 새로운 시스터가 매우 상냥하다고
 항상 즐겁게 시간을 기다렸어.



Side Event !!

라디오 방송국 <트리스타 방송> 카운터에 있는 린리와 대화.



린리 : 저기, 뭉크랑 아는 사이인가요? 흐음…?
 린리 : 뭐, 아무래도 좋지만~

린리 : 그 녀석 어두운 성격이면서 열혈행세라니
약간 기분 나쁘지 않나요?

린 : 글썄요...

린리 : 아-, 전 린리라고 해요. 올해 들어왔으니
그 녀석과 동기인데 말이죠~.

린리 : 웬지 언제나 텐션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린리 : (하하... 꽤나 신랄한 말투의 아이로군.)

다시 대화.

린리 : 저도 올해 들어왔으니 저 녀석과 동기인데 말이죠~

린리 : 웬지는 웬지 기분 나쁘지 않나요?

린리 : 웬지 언제나 텐션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Side Event !!

촌장 저택 앞 벤치의 프랑키와 대화.



프랑키 : 응? 당신 누구야?

프랑키 : 보지 못한 얼굴인데... ..하아, 아무래도 상관없어...

프랑키 : 인생 따위 될 대로 되라지...

린 : (그건... 좋지 않다고 보는데? 꽤나 무기력한 사람이로군...)

다시 대화.

프랑키 : 사관학교의 신입생들은 모두 희망에 가득해있을 테지...
하아...

프랑키 : 뭐, 아무래도 좋아...

프랑키 : 아무튼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Side Event !!

길거리의 베이커리 카페 <루셋트> 앞 사브리나와 대화.



사브리나 : 쿵쿵... 왠지 좋은 냄새가 나네.
사브리나 : 베이커리 카페<루셋트>? ... 헤에, 분위기 좋은 걸.
사브리나 :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녔더니 지쳤고 잠깐 들어가 볼까.

다시 대화.

사브리나 : 리브스에 이런 가게가 있었네.
사브리나 : 후후, 잠깐 들어가 볼까.



Side Event !!

베이커리 카페 앞에서 돌아다니는 차미 할멈과 대화.



차미 할멈 : 그건 그렇고 그냥저냥한 거 같아. 저기 사관학교라는 건.
 차미 할멈 : 내가 보기엔 건물은 훌륭하지만
 아직은 한참은 멀지 않았을까?
 차미 할멈 : 그 유명한 드라이켈스 대제가 만든 학교잖아?
 차미 할멈 : 그런 것 치고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 말까..
 차미 할멈 : 내가 아는 대제는 덩치가 크고 능름한 호남형의 남자야.
 차미 할멈 : 학생들도 좀 더 튼실하고 능름해야지.
 린 : 저기, 그건 글썄요...(말을 할 틈을 주지 않는 할머니네...)
 린 : (단지 뭐. 분교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올바른 지적이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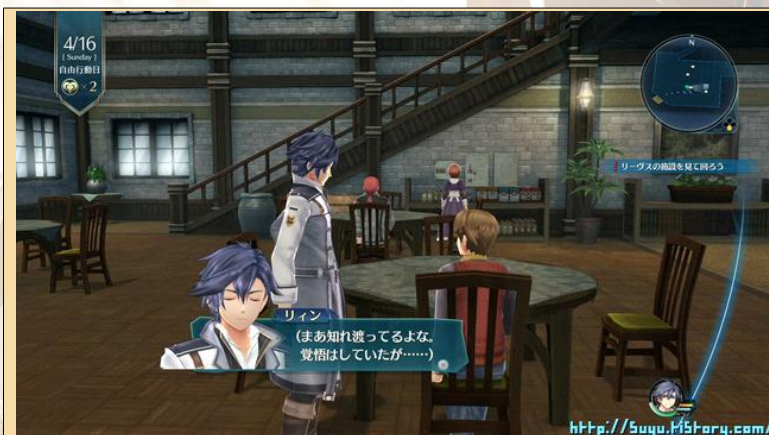
다시 대화.

차미 할멈 : 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좀 더 튼실하고
 능름한 학생들이 잔뜩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
 차미 할멈 : 저 아이들... 군인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도
 보이던데 괜찮을려나.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여관주점 <바니즈>에 있는 카인과 대화.



카인 : 후우~ 역시 이지역의 술은 최고라니까.
 카인 : 어라? 당신 설마 그 소문의 영웅인가?
 카인 : 헤에, 대단하군... 마을에 돌아가면 모두에게 자랑해볼까.
 린 : 하하하...
 린 : (어느 정도 널리 퍼졌군. 각오는 했었지만...)

다시 대화.



카인 : 나는 리브스의 가게에 야채를 납품하고 있어.
 카인 : 하하, 이후에도 잘 부탁해.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여관주점 <바니즈>에 있는 데이지와 대화.



데이지 : 앗, 학원의 교관님이네-. 안녕하세요~!
 데이지 : 분명 란디씨의 동료맞죠~?
 린 : 란디씨...? 아아, 란돌프 교관 말이로군.
 데이지 : 맞아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불린다고~
 데이지 : 란디씨, 얘기도 재미있어서 언제나 웃게 해준단 말이죠~
 린 : (과연, 주점에는 꽤나 자주 들르는 모양이군.)
 데이지 : 뭐, 아무튼 느긋하게 있다 가요~. 멋져 보이는 교관님!

다시 대화.

데이지 : 그런데... 자 봐요! 이 메이드복, 귀엽죠~!
 데이지 : 후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도울 테니까, 하면서
 아빠가 준비해주셨어요.
 데이지 : 귀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웨이트리스의
 특권이란 말이죠~!
 린 : 하하하...
 린 : (분명 지나씨의 여동생이었을 터인데...
 성격은 정반대인 모양이군.)

다시 대화.

데이지 : 웬지 학교가 생긴 것 때문에 사람도 잔뜩 오고.
 데이지 : 후후후, 옷을 자랑할 찬스란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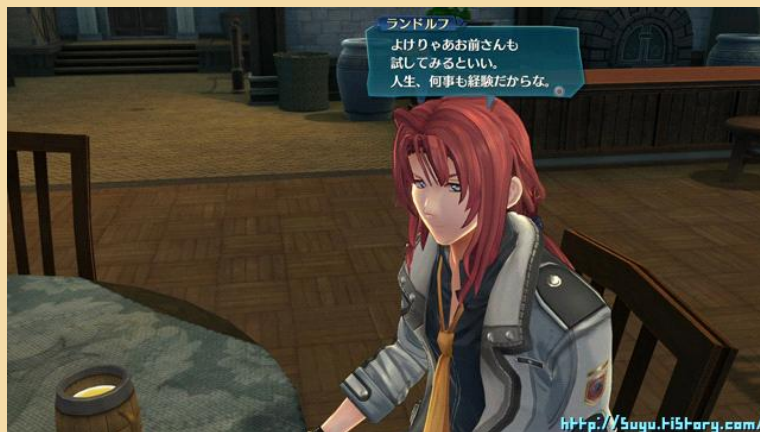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여관주점 <바니즈>에 있는 란돌프와 대화.



란돌프 : 여어, 슈바르쳐. 너도 한잔 마시러 온 거냐?
 린 : 란돌프씨...
 린 : 설마 정말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란돌프 : 하하, 안심하라구.
 란돌프 : 이래봐도 입장이란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란돌프 : 적어도 대낮부터는... 푸하, 죽이네.
 린 : 저기...
 란돌프 : 하하, 논 알콜이라도 분위기란 건 중요하잖아?
 란돌프 : 데이지~~! 한잔 만 더 가져다주겠어??
 데이지 : 네, 알겠어요~.
 린 : 뭐랄까... 적당히 드세요.
 린 : (하지만 벌써 단골이 된 거 같은 분위기로군.)
 린 : (이것도 계산된 행동인 건가? ...
 한없이 본성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게.)

다시 대화.



란돌프 : 하하, 하지만 최근의 논 알콜 맥주는 잘 만들어 졌는걸.
 란돌프 : 괜찮다면 너도 마셔봐. 인생은 뭇보다 경험이니까.



Side Event !!

베이커리 카페 <루셋트> 카운터의 리자와 대화.



리자 : 어머니, 어서 와요♪ 처음 오는 손님이죠?

리자 : 우르는 반년정도 전에 오픈한 베이커리 카페예요.

리자 : 지명도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레퍼토리도 점점 늘려갈 생각이예요.

리자 : 후후, 이 후로도 자주 들려주세요.

다시 대화.

리자 : 그건 그렇고 리브스에 학교가 생기다니.

리자 : 후후, 이건 손님을 늘릴 수 있는 찬스려나.

리자 : 젊은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메뉴를 시급히 만들지 않으면.



Side Event !!

리브스 시내 부띠끄 <라팡>에 있는 발레리와 대화.



발레리 : 아 ... 이 옷, 괜찮을 지도.
 발레리 : 후우... 사도 별로 입을 기회는 없나.
 발레리 : 슈바르처 교관님... 언제부터 계셨던 건가요?
 린 : 아니, 그다지 기척을 숨기고 있던 건 아닌데 말이지...
 린 : 눈에 보이길래 조금 신경이 쓰여서 말야.
 부활동 쪽은 결정될 거 같아?
 발레리 : 후우... 아니요, 특별히는...
 발레리 : 오히려 점점 더 분교장님이 말했던 학생회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정도예요.
 린 : 그거 너무 자포자기인데...
 발레리 : ... 어찌됐건 교관님에게 상담하고 싶은 일은 없으니까요.
 발레리 : 그럼 이만--
 린 : (후우...그런 그럴고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진다랄까.)
 린 : (...하지만 뭐, 노잔브리야에서 왔다고 한다면 당연한 반응인가.)

다시 대화.

발레리 : 됐으니까 내버려두시면 안될까요?
 발레리 : 모처럼의 휴일인데 저도 맘 편히 쉬고 싶거든요.



Side Event !!

리브스 중앙 광장에 있는 시드니와 대화.



시드니 : 휘유~! 언니들 꽤 귀엽네~!
 시드니 : 괜찮다면 리브스 시내를 안내해줄까?
 시드니 : 하지만 나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여자 아이 1 : 하하, 웃기다.
 여자 아이 2 : 하지만, 이 사람에게 물으면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을지도?
 여자 아이 3 : 응, 그럴지도. 같은 학원의 학생인 모양이고.
 시드니 : 뭐야? 곤란한 일이라면 도움이 되어줄게~.
 린 : (이 지역의 아이들이 아닌 모양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놀러왔다는 건가.)
 린 : (그건 그렇고 시드니는 꽤 담력이 있는 편이군.)

다시 대화.

시드니 : 곤란한 여자아이들의 힘이 되어주면 포인트 업해서
 친해지게 되는 건 틀림없어.
 시드니 : 나하하, 꽤 징조가 좋은 걸!



Side Event !!

클럽하우스 지하의 수영장에 있는 구스타프와 대화.



구스타프 : 흠, 준비체조 정도면 나도 참가해 볼까.
구스타프 : 후후, 하지만 웨인은 이러니저러니해도
무드메이커인 모양이군.



Side Event !!

레오노라, 웨인, 스타크와 대화.



레오노라 : 자 그럼, 가볍게 준비운동을 해볼까.
웨인 : 흠... 그럼 팔굽혀펴기와 복근 운동 어느 쪽을 할까?
스타크 : 아니, 그건 준비운동이 아니니까.
린 : (하하, 우선 수영부는 무사히 활동하기 시작한 모양이군.)



Side Event !!

스타크와 대화.



스타크 : 하하, 웨인은 정말로 몸을 단련하는 게 좋은 모양이네.



Side Event !!

레오노라와 대화.



레오노라 : 후후, 웨인도 꽤 터프한 소릴 하는 걸.

레오노라 : 뭐, 철저하게 몸을 단련할 거라면
나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말야.



Side Event !!

웨인과 대화.



웨인 : 그렇군. 준비운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신체를 풀어주기 위한 체조란 소리인가.

웨인 : 우선 오늘은 근육트레이닝 쪽은 자제하도록 할까.



Side Event !!

그라운드 구석 화물창고에 있는 루이제와 대화.



루이제 : 흠, 흠. 이걸로 라켓은 갖추어 질려나~.

루이제 : 남은 건 어디보자~...

루이제 : 아, 이런 곳에 펜싱용의 후롤레가.

루이제 : 이것도 오렐리아 분교장님의 사유물품이려나~~?

루이제 : 우후후, 분명 강하고 멋있으실 테지~.

다시 대화.

루이제 : 오렐리아 분교장님은 뭐를 해도 그림이 되는 거 같아요~.

루이제 : 후후후, 정말로 동경하게 된다니까요~.



Side Event !!

※ 그라운드 내에 있는 제시카, 유우나와 대화.



제시카 : 루이제, 너무 늦네...

유우나 : 응, 늦네...

제시카 : ...그리고 보니 유우나.

제시카 : 나는 제국인인데 함께 부활동을 해도 괜찮은 거야?

제시카 : 게다가 귀족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는 꽤나 경계를 했었지만.

유우나 : 아아, 정말. 처음에는 유별나게 쏘아 대던 것은 반성하고 있으니까.

유우나 : 것보다 제시카도 처음이잖아?

유우나 : 무술가문(武門)의 출신으로 무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나 역시 안 질 거니깐!

제시카 : 후후, 바라던 바야.

린 : (하하... 유우나도 의외로 잘 해나가고 있는 모양이군.)

- 유우나 인물 노트 갱신① -

다시 대화.

제시카 : 루이제, 아무래도 너무 늦는 걸...

유우나 : 응... 뭔가 사고라도 난 걸까?



Side Event !!

그라운드 북서쪽의 격납고에 있는 파블로와 대화.



파블로 : 같은 기술과 인간으로서 티타라면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블로 : 크우옥… 아무래도 한발 늦은 것 같네.
 파블로 : 하지만 자유행동일은 아직 막 시작이야…
 이대로 포기할 내가 아니여!
 린 :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활동에는
 두 사람이상이 필요하니까 말야.)
 린 : (본인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고 좀더 지켜보기로 할까.)

다시 대화.

파블로 : 하지만 자유행동일은 아직 막 시작이야…
 이대로 포기할 내가 아니여!
 파블로 : 일단 남자들은 이미 전멸… 그럼 남은 것은
 여자 전원에게 말할 거는 것뿐이여!



Side Event !!

격납고에 있는 티타와 대화.



티타 : 철도부... 분명 기술자로서 흥미는 있지만요.
티타 : 이미 부활동은 요리연구부로 결정해서...
게다가 중복가입은 불가능한 듯하고요.
티타 : 아우우, 파블로씨에겐 미안하게 됐네요.



Side Event !!

격납고 2층의 응접실에 있는 슈밋트 박사와 대화.



슈밋트 박사 : ...
슈밋트 박사 : 흠, 여기가 정리되면 남은 것은 마무리 뿐인가...
하지만 그 전에...
린 : (슈밋트 박사님, 바빠보이네...)
린 : (기분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빨리 철수를--)
슈밋트 박사 : 흠, 슈바르쳐인가...
슈밋트 박사 : 좋은 타이밍이니 전해두도록 하지.
슈밋트 박사 : 오늘 상황을 봐서 실험에 투입시킬 테니
준비를 해두도록 해.
린 : 그, 그 말은 무슨...
슈밋트 박사 : ...
린 : (후우... 정말로 이 사람은 여전히군.)

다시대화.

슈밋트 박사 : 좋아... 대강은 정리가 됐다.
슈밋트 박사 : 이걸로 마무리에 들어갈 수 있어...
우선은 이 계산부터...



Side Event !!

격납고에 있는 발리마르와 대화.



발리마르 : 자유행동일... 너에게 있어선 꽤나 감개깊은 단어일 테지.

발리마르 : 이 기회에 몸과 마음을 확실하게 쉬도록 해라.

린 : 하하, 언제나 신경을 써줘서 고마워, 발리마르.



Side Event !!

본교사 1층 양호실에 있는 토와와 대화.



토와 : 아, 린군. 어딘가 다친 거 아니지?

린 : 네, 별로 그런 건 아니에요.
 린 : 토와 선배는 오늘 이대로 양호실에 대기인가요?
 토와 : 응, 부활동 선택도 막바지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야.
 토와 : 일단은 다른 서류 일을 다 끝냈을 정도로 한가하긴 하지만.
 토와 : 뭐, 이곳 일이 바쁘면 곤란하겠지만.
 린 : 하하, 분명 그럴네요.
 토와 : 어찌됐건 간에 이곳은 괜찮으니깐 린은 좀 편히 쉬도록 해.
 토와 : 부활동에 대한 것도 있고 학생들의 상황을
 둘러봐주었으면 고마울 거 같아.
 린 : 네, 알겠습니다.

다시 대화.

토와 : 그건 그렇고 자유행동일이 좋은 날씨가 다행이야.
 토와 : 아직은 지내기 좋은 계절이고 린도 이 기회에
 기운을 북돋아두면 괜찮지 않을까.



Side Event !!

※ 본교사 1층의 장서실에 있는 타치아나와 애쉬와 대화.



애쉬 : 어이, 어이... 그러니까 뭘 고민할 필요가 있냐고.
 애쉬 : 너한테 있어서도 좋은 얘기잖아?
 타치아나 : 하, 하지만...
 린 : (뭐야? 설마 트러블인가...?)
 린 : 애쉬--- 타치아나랑 뭐를 하고 있지?
 애쉬 : 헛, 또 짜증나는 녀석이...
 타치아나 : 예, 저기, 저기요...
 타치아나 : 그, 그다지... 애쉬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린 : 그래...?
 타치아나 : 아, 네...
 타치아나 : 시, 실은 저, 어떤 부활동에 흥미가 있어서...
 타치아나 : 하지만 부원이 모일 기미도 없어서...

애쉬 : 그럼 내가 들어가 주지--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애쉬 : 그걸 이 여자가 우물쭈물하고...
 린 : 과연... 그건 대체 어떤 부활동인데?
 타치아나 : 무, [문예부]인데요...
 린 : 헤에, 문예부인가...
 린 : (문예부라고 하면 그녀가 소속되 있던...
 하하, 그리운 걸.)
 린 : ...뭐, 대강의 사정은 이해했어.
 린 : 다시 말해서--- 타치아나는 걱정하는 거지?
 린 : 애쉬가 “그저 부에 소속하는 것만을 위해서”
 문예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타치아나 : 그, 그럴 리가, 저는 그렇게까지...
 애쉬 : 핫,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타치아나 : 에...?
 애쉬 : 애당초 그 분교장이 말을 꺼낸 일이니까 말야.
 애쉬 : 어차피 “성과”라는 것을 요구할 게 뻔하잖아.
 애쉬 : 그럴 듯한 평론을 정리해서 어딘가의 문예지에라도
 글을 써서 보내면 불만은 없을 테지?
 타치아나 : 저, 정말인가요...? 분명 그거라면...
 린 : 하하, 아무래도 얘기가 정해진 거 같군.
 린 : (그건 그렇고 애쉬가 문예부인가...
 솔직히, 의외지만... 뭐 괜찮겠지.)

- 애쉬의 인물 노트 ① 갱신 -

타치아나와 대화.



타치아나 : 애, 애쉬씨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었다니...
 타치아나 : 하, 하지만...이거라면 제대로 된 문예부로서의
 활동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애쉬와 대화.

애쉬 : 나 참, 모처럼 직접 말을 건넌더니 말야.
 우물쭈물거리고...
 애쉬 : 뭐 됐어... 아무튼 이걸로 나도 문예부원이야.
 애쉬 : ㅋㅋ, 모쪼록 편히 좀 지내보실까.
 린 : (정말로 이걸로 괜찮은 걸까...?)



Side Event !!

1층 교관 사무실에 있는 미하일 소령과 대화.



미하일 소령 : 슈바르처 교관인가.
미하일 소령 : 아무래도 아침 일찍부터 여러 장소를 보고 돌아다니는 모양이더군.
린 : 네, 모처럼의 기회이니까요.
린 : 게다가 지금까지 거의 돌아다니질 못했고요.
미하일 소령 : 자네의 경우 사람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처음일 테니까 말야.
미하일 소령 : 하지만 요 2주간, 교단에 서는 것에도 꽤나 익숙해진 듯하군.
린 : 뭐, 처음에 비하면, 입니다만.
미하일 소령 : 흠...하지만 알고 있다시피, 다음 주 이후에는 또 상황이 바뀌게 돼.
미하일 소령 : 학생들의 상담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기운을 복돋아 주는 게 좋을 거야.
린 :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대화.

미하일 소령 :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모쪼록 3시부터 시작하는 브리핑에는 늦지 않도록.
미하일 소령 : 다음 주말에 행해지는 [특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개요와 목적의 설명...
미하일 소령 : 모쪼록 명심하고 참가하도록 해.



Side Event !!

※ 본교사 2층 음악실에 있는 오렐리아 분교장과 대화.



린 : 오렐리아 분교장님... 이런 곳에 계시는군요.

오렐리아 분교장 : 나도 분교의 교장인 동시에 예술교양의 담당교관이기도 한 몸이니까.

오렐리아 분교장 : 뭇보다 수업의 기회는 주 1회... 아직 2번 밖에는 지도하지 않았지만 말야.

린 : 그 만큼, 밀도도 높다랄지...

린 : 무술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까지 조예가 깊으시다니 놀랐습니다.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단순히 귀족의 소양이라는 것뿐이야.

오렐리아 분교장 : 듣자하니, 슈바르쳐도 예전에 학원제에서 기타를 피로하였다고 하던데.

오렐리아 분교장 : 기회가 있으면 내 수업에서 치게 해도 재미있을지도 모르겠군.

린 : 하하, 아무리 그래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 때처럼은 치지 못하는데 말이죠...

린 : 필요하다면 하시면 협력해드리겠습니다.

오렐리아 분교장 : 그런가. 기억해두지.

- 오렐리아의 인물 노트 ① 갱신 -

다시 대화.



오렐리아 분교장 : 현대 지금 현재 미술부나 음악부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군.
오렐리아 분교장 : 다소 재미없는 느낌도 드는데...이것도 자주성을
중시한 결과라면 별 수가 없겠지.

※ 필수 퀘스트와 AP 퀘스트를 보고난 후, 예비당으로 가자.

린 : 일요일학교도 끝난 모양이군...
아이의 목소리 : 시스터, 안녕히 계세요~!
상냥한 목소리 : 응, 안녕. 조심해서 가세요.



시스터 로지는 : 후훗... 잘 와주셨어요.
시스터 로지는 : 오랜만이네요, 린 씨.
린 : 너는----로지는!?
린 : ---아니, 뭉크에게서 들었을 땐,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린 : 네가 리브스에 있다니 생각도 하지 못했어.

린 : 두 사람 모두, 한 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스터 로지느 : 후후, 죄송해요. 바빠서 꽤 여유가 없었거든요.
 시스터 로지느 : 게다가 뭉크씨에게서도 [될 수 있는 한, 말하지 말고 놀래켜주자.]라고 제안을 받았거든요.
 린 : 이런, 이런... 하지만 기쁘군.
 린 : 이렇게 학생시절처럼 시스터를 하고 있는 너를 만나게 돼서 말야.
 시스터 로지느 : 린 씨... 후후, 저 역시요.
 시스터 로지느 : 톨즈 제2분교의 교관--- 자신이 결단한 길을 착실히 걸어 나가고 있는 모양이라서요.
 시스터 로지느 : 학생시절, 린 씨를 그늘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해요.
 린 : 아...



??? : 수호기사(도미니언) 제 2위, <상자술사> 라이선더.
 ??? : 그게 제 정식 신분과 별명입니다.
 로지느 : ---제 신분은 “종기사(從騎士)기사”
 로지느 : 라이선더경을 지원하는 성배기사단의 견습기사예요.
 린 : 네가 리브스에 온 “이유”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린 : 네 소속-- “그 서적”에도 당연히 관계가 있는 것이겠지?
 로지느 : ...후후,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로지느 : 믿어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재회를 즐겁게 기다린 것은 사실이에요.
 로지느 : 주어진 “사명”이전에--- 이 마음에 거짓은 없어요.
 린 : ... 하하, 알겠어. 고마워, 로지느.
 린 : 나도 너에게 협력을 마다할 이유도 없어. 새삼스럽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
 로지느 : 후훗... 네, 저야말로요.

- 그 후, 린은 로지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그녀와의 대화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린 : 그럼 또 보자, 로지느.
 시스터 로지느 :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린 : 응, 그럼---
 톨 : 좋았어-. 지금부터 브레이즈 페스로 승부다!
 잭 : 헤헛, 지지 않는다고!

린 : 방금 전 일요학교의 아이들인가.
린 : 이 카드는 뭐지…?



시스터 로지느 : 아, 그건… 최근 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카드 게임인 모양이네요.
시스터 로지느 : 쉬는 시간마다 가지고 놀았어요.
린 : 그런가… 좋아, 그럼 가져다주고 올까.
시스터 로지느 : 괜찮으세요? 바쁘신 게…?
린 : 하하, 모처럼이니깐. 남은 일은 내게 맡겨줘.
시스터 로지느 : 후후,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 로지느의 인물노트 갱신. -



Side Event !!

세릴과 대화.(예배당에서 로지느랑 대화 한 후에 가능.)



세릴 : 알민, 정말로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알민 : 응, 오늘은 탐험하고 돌아갈 거야~!
 세릴 : 아하하, 그렇구나. 너무 돌아다니지는 말아야 해?
 알민 : 네~!

세릴과 대화.

세릴 : 저 두 명은 정말~... 금방 놀러간다니까!
 세릴 : 나중에 한 대씩 맞아야겠어!

테티와 대화.

테티 : 나, 오늘은 부띠크에 놀러갈 거야.
 테티 : 잭 오빠들은 어떻게 놀던 상관 안 해.

※ 아이들이 떨군 카드를 가지고 잭, 문구 상점 <카네기 서점>에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



린 : 방금 전의 아이들인가... 사이좋게 카드게임으로 놀고 있는 모양이네.
 톰 : 저기, 형은 누구세요...?
 잭 : 뭐야, 형도 대전하고 싶은 거야?
 린 : 아니--- 아까 물건을 주었거든.
 린 : 이 카드는 너희들 것이 맞지?
 잭 : 아---그거 내 [브릭스]잖아.
 잭 : 어쩐지, 1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잭 : 고마워, 형!

- 잭에게 VM 카드를 건넸다 -

린 : 하하, 천만의 말씀.
 잭 : 맞아, 모처럼이니까 형도 같이 하자.
 잭 : 답례로 룰을 가르쳐 줄 테니까.

통 : 밴티지 마스터 줄여서 <VM>--- 정말 재미있어요.
 린 : 헤에, 그럼 모처럼이니 부탁해볼까.
 잭 : 신난다---
 잭 : 아니, 초심자라는 건 당연히 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겠지.
 통 : 그러네, 우리 것을 건네주는 것도 뭐하고...



여성의 목소리 : 후후, 그럼 친절한 교관님에겐 내가 스타터 카드 셋트를 선물해줄까나~♪

잭 : 아, 치사해, 치사해---!!

통 : 후후, 잭--- 스타터 카드라면 우리들도 처음에 받았잖아.

린 : 저기... 정말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레이첼 : 응, 이 아이들도 그랬었지만 줄 만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배포하고 있어.

레이첼 : 그걸 기회로 게임에 빠지면 꼭 우리 가게에서 강한 카드를 사가길 바랄게♪

린 : 과연, 그런 거로군요.

- <VM>의 카드를 몇 종류 받았다 -

린 : 정말 고맙습니다.

린 : 자 그럼, 곧장 도움을 받아 보도록 할까.

잭 : 헤헛, 말겨만 달라구!

대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카드 덱(デッキ)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덱 1을 임의 작성해놓았기에 OPTION 버튼을 눌러 대전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게임의 공격 순서. 선공(先攻), 후공(後攻)은 코인토스로 결정됩니다.

~ 카드를 보는 방법에 관해서 ~

초기 카드의 확인과 다시 뽑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한번만 카드를 카드 덱으로 되돌리고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 오른쪽 위의 [필요 마나]가 클수록 게임 초반에는 소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마나]가 큰 것은 교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엔 <브릭스>를 교환하도록 해보세요.

~대전 화면을 보는 법에 관해서 ~

상대 마스터의 체력이 0이 되면 승리, 자신의 마스터의 체력이 0이 되면 패배입니다.
카드를 구사하여 승리를 노려봅시다.

~ 턴에 관해서 ~

턴이 돌아오면 카드 덱에서 랜덤으로 1장 카드가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행동에 필요한 마나도 입수하게 됩니다. **이 마나의 입수량은 1턴이 지날 때마다 1개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10개)

후공격을 하는 측에는 1턴에 한해서 랜덤 위치로 [마정석]이 출현합니다.

~ 행동에 관해서 ~

자신의 턴에서는 카드를 필드에 소환하거나 필드에 있는 카드를 행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상대 마스터 카드를 쓰러뜨리는 것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주변이 **녹색으로 빛나는 것이 현재 행동 가능한 카드**입니다.
이것을 행동시켜보도록 합시다.

~ 소환에 관하여 ~

수중의 네이티얼 카드(ネイティアルカード)는 자기편 진형의 비어있는,
또는 마정석이 위치한 장소라면 어느 위치에서든 소환이 가능합니다.

진지(陣地)에는 **전위(前衛)**와 **후위(後衛)**가 존재합니다.
통상의 카드는 전위에 위치할 때에만 공격이 가능하니 전위에 소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이티얼 카드를 전위에 소환해 봅시다.

네이티얼 카드를 소환하기 위해 마나가 소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나는 갖가지 행동에 필요**합니다.

-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소환 할 때.
- 카드 더미에서 마법 카드를 사용할 때
- 마스터 카드가 스킬을 사용할 때(※스킬이 없는 마스터도 존재.)

또한 **소환직후의 카드는 해당 턴에서의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턴부터 행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테두리가 **녹색으로 빛나는 카드가 현재 행동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카드를 행동 시켜 봅시다. **모든 행동이 끝나거나 마나가 모두 소모 된 후에는 턴을 종료** 합니다.

~ 이동에 관해서 ~

자신의 진영이라면 **어디든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동 장소에 다른 카드가 존재할 경우 **서로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전위에 이동하면 적진의 카드를 공격할 수가 있으나

반대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술에 맞게 이동하도록 합시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공격이나 스킬을 사용하기 전까지입니다.

~ 속성의 우위에 관해서 ~

네이티얼 카드에는 지(地), 수(水), 화(火), 천(天)의 속성이 있으며
상성에 의해 줄 수 있는 데미지량이 변동합니다.

지>수>화>천>지...의 상성이며
[강점속성] 줄 수 있는 데미지에 +1
[약점속성] 줄 수 있는 데미지에 -2

또한 마스터 카드에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공격은 서로 간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공격측] 상대에게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준다.
[반격측] 상대에게 공격력 -1의 데미지를 준다.

※ 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스터 <파이터(ファイター)>는
어빌리티 효과로 반격의 데미지가 1증가합니다.

~ 턴 종료에 관해서 ~

세모 버튼으로 자신의 턴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턴을 종료해보도록 합시다.

~ 마법 카드에 관해서 ~

이 카드는 마법 카드(魔法カード)입니다. 사용하면 바로 마법이 발동됩니다.
마법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표기된 마나 수만큼 마나가 필요합니다.
또한 1회 사용을 하면 소멸됩니다.

~ 마정석(魔晶石) 카드에 관해서 ~

마정석 카드는 특별한 마법 카드입니다.
대상의 공격력 +1, 체력 +1을 시켜주는 데다가
마나 1을 추가로 입수합니다.

또한 대상이 네이티얼 카드일 경우 스킬의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원거리 공격에 관해서 ~

이 카드는 [원거리 공격(遠距離攻撃)] 타입입니다.
통상적인 적진의 가장 앞 대열 밖에는 공격하지 못하지만
원거리공격 타입의 카드는 적진의 어디라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격대상에서 1렬(列) 이상 떨어져 있으면 반격을 받지 않습니다.

~ 턴의 경과에 따른 변화 ~

턴의 수가 3의 배수가 되면 양측 진영의 빈 공간에서 마정석이 출현합니다.
이 마정석은 마법카드의 마정석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카드를 이동시켜서 얹으면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잭 : 아아, 저버렸다.

잭 : 할 수 없지, 자!

- 승리의 증표로 <VM>카드 마정석 x 3를 얻었다. -



린 : 저기, 이건…?

레이첼 : 후후, 이것도 <VM>의 게임 룰이야.

레이첼 : 대전을 받은 상대가 진 경우는 상대에게 무언가 카드를 주지 않으면 안돼.

레이첼 : 뭐, 그 외에 언급이 있던 경우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린 : 하하, 그렇군요.

툼 : 후후, 이래서 <VM>은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린 : 그 말대로야…

린 : 전략성도 꽤나 높은 편이고 이걸 빠져들 만 하겠는 걸.

레이첼 : 후후, 호객 성공!

잭 : 것보다… 형은 설마[젓빛 기사]야?

린 : 아, 응… 뭐, 그렇지.

잭 : 흠음, 뭔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네.

툼 : 응, 좀더 근육이 울끈불끈하고 신장도 3아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야.

린 : 아니, 아무래도 3아쥬는 이상하잖아.

잭 : 뭐, 됐어---아무튼 형은 형이니까.

잭 : 오늘 놀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대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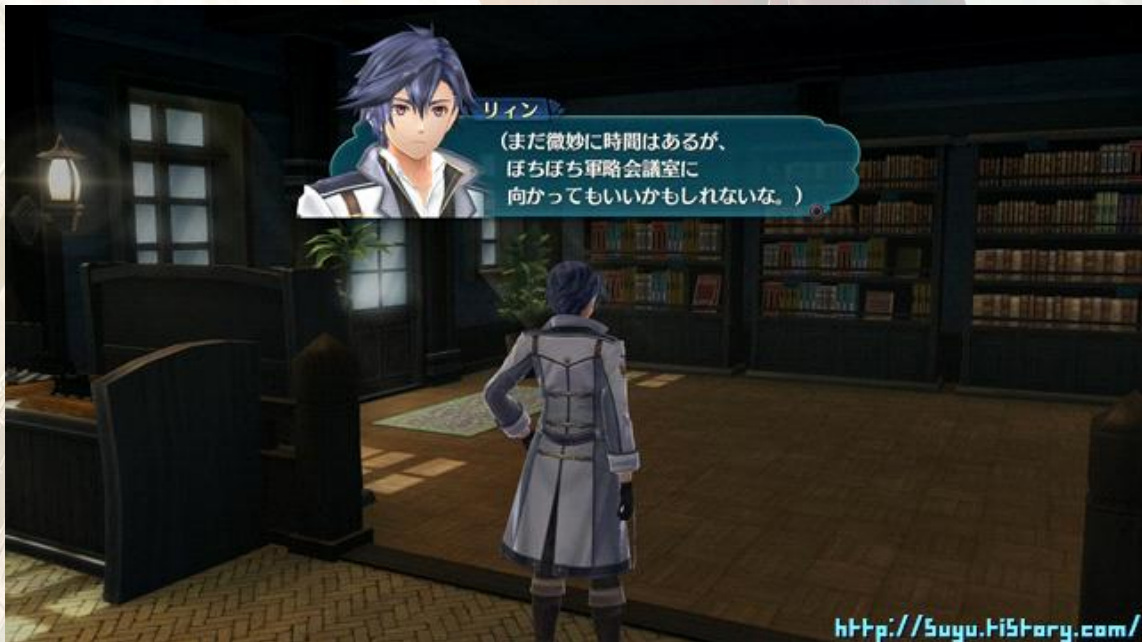
린 : 응, 나라도 상관없다면 또 하자.

-카드 노트(カードノート)가 해금되었습니다. -

카드 노트는 입수한 <VM>카드의 상세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툼 화면에서는 카드 덱의 구축도 가능하므로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VM> 이벤트를 보면 이벤트 발생.



린 : (... 자 그럼, 아침부터 여러모로 시간을 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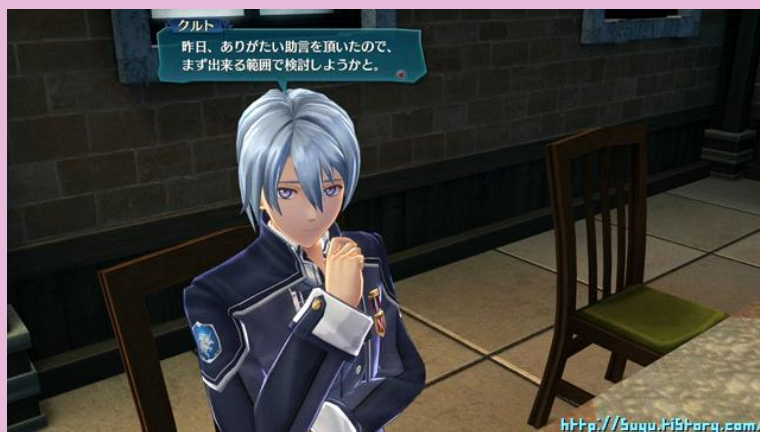
린 : (3시부터의 브리핑...)

린 : (아직 미묘하게 시간은 남았는데 슬슬 군 전략 회의실로 향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군.)



Kizuna Event !!

※ 베이커리 카페에 있는 크루트와 대화.



린 : 크루트, 그건 설마 체스판인가?

크루트 : 네, 보이는 대로입니다. 방금 서점에서 사왔어요.

크루트 : 어제, 고마운 조언을 받았기에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해볼까하고요.

크루트 : 하하...그렇군. 부활동 선택의 일환이란 건가.

린 : 보고 있는 기보의 레벨을 보았을 때 꽤나 실력이 있는 모양이군?

크루트 : 뭐, 가끔씩 아버지나 형의 상대를 했었으니 나름대로는 합니다.

크루트 : 하지만 아무리 소양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기보의 연구 정도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크루트 : 체스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을 듯하네요.

린 : (크루트의 부활동 선택... 뭔가 상담을 해 줄 건 없으려나?)

- 크루트와 함께 보낸다(クルトと過ごす)를 선택.

린 : 크루트, 뭔가 상담할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린 : 어제도 말했지만 교관으로서 가능한 일을 해줄 생각이니까.

크루트 : ... 그럼 교관님.

크루트 : 체스부를 검토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한 대국(対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린 : 대전 상대... 나로 괜찮겠어? 일단 나도 소양은 있긴 하지만.

크루트 : 그럼 문제는 없을 듯하군요.

크루트 : 뭐... 제자에게 지는 무참한 꼴을 보이기 싫으면 무리하게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린 : ...하하, 알겠어. 상대가 되어주도록 하지.

린 : 나도 꽤 오랜만이고 지도를 받아보도록 할까.

-이렇게 해서 린과 크루트의 체스 대국이 시작되어...

서로 가볍게 흘러가는 듯이 템포 좋게 장기말을 움직여 나갔다. -



린 : ---자, 다음은 네 쪽 차례야.

크루트 : ...꽤 하시네요, 교관님. 오랜만이라고 했던 건 설계(속임수)였던 건가요?

린 : 하하, 설계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간단히 질 생각도 없어.

린 : 나도 학생시절 체스부에 있던 친구와 대국을 몇 번이나 함께해왔으니까 말야.

크루트 : ...과연. 다소 오판했던 부분은 인정하지요.

크루트 : 교관님의 검토 이 정도의 실력이 숨겨져 있기를 기대하지요.

린 : 하하, 글썄? 그걸 끌어내는 것은 네 실력에 달려있을 지도 모른다구?

크루트 : 으...후후, 좋습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본심으로---

옛된 목소리 : 앗, 쿠르트군 여기 있다-♥

린 : 옛…?

쿠르트 : 너, 너희들은…



여자아이 1 : 다행이다~찾아서! 계속 찾아 다녔어!

여자아이 2 : 후후, 오래간만이야~! 놀라게 해버렸나?

쿠르트 : …응, 놀랐어. 어째서 너희들이 여기에?

여자아이 3 : 쿠르트, 도장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여자아이 1 :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쿠르트 : 그,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도에서?

…하하, 그거 걱정을 끼쳤네.

린 : (아무래도 쿠르트가 살던 곳의 지인들인 모양이군.)

린 : (하지만…)

여자아이 3 : 아, 이거 설마 체스라는 거? 역시 머리가 좋다니까~!

여자아이 2 : 저기-, 우리들도 여기서 보고 있어도 돼~?

쿠르트 : …아니, 그게…

린 : ---미안하군, 너희들. 오늘은 쿠르트와

검술 연습이 있어서 말야.

린 : 지금까지 휴식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슬슬 연무장으로 돌아갈 시간인 듯하군.

쿠르트 : 교, 교관님…?

여자아이 1 : 예, 교관님?

여자아이 2 : 해에, 이 사람이 쿠르트의. 근데 어디서 본 듯한…

여자아이 3 : ---아앗!?

여자아이 1 : 서, 설마 아빠의 신문에 실려있던---

린 : 찾.

린 : 하하… 일단은 다른 사람들에게겐 비밀로 해주면 좋겠어.

린 : 모처럼 와주었는데 미안하게 됐군. --자, 쿠르트. 어서 가볼까.

쿠르트 : …네.

여자아이 1 : 하아아…저 사람이 그<젯빛 기사>님…

여자아이 2 : 저 사람이 쿠르트의 교관님…? 그런, 그런 거…

여자아이들 : ---너무 멋지다~♥

린 : …후우, 일단 여기까지 오면 괜찮겠지.

쿠르트 : …죄송해요. 신경을 써주셔서.

린 : 하하, 괜찮아. 내가 멋대로 한 일이니까.

린 :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기대 받는 것도,

사실은 기쁜 것이어야 할 텐데.

린 : 거북하다랄까...그러한 때도 있던 말이지.
 크루트 : 아...
 크루트 : (젯빛 기사... 여러 사정이 있는 게 당연한가.)



크루트 :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크루트 : 적어도 제가 좀 더 반달 같았더라면...
 크루트 : 아버지나 형과 똑같이 태어났다면 실력 이외의 무의미한 평가 따위...
 린 : 옛...?
 크루트 : ...잊어주세요. 단순한 푸념이었으니까요.
 크루트 : 모처럼 학원에 왔으니 한동안 연무장에 틀어박히겠습니다.
 크루트 : 시내에 있으면 그녀들과 또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린 : 하하, 그게 좋을지도. 뭐하면 정말로 연습훈련이라도 해줄까?
 크루트 : 아니요, 지금은 혼자서 몰두하고 싶으니까요.
 ---그럼, 이만.
 린 : 대국도 다음 기회에, 인가.
 린 : 틀림없이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彼) 자신의, 그리고 나의 과제로군.

- 크루트와 인연이 깊어졌다! -



Kizuna Event !!

※ 잡화점 <여수안>에 있는 유제와 대화.

유제 : 아, 린교관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린 : 아아, 좋은아침, 유제.
 유제 : 후후~ 제대로 이름을 기억해주셔서 기쁘네요.
 유제 : 으음, 저도 VII반이었으면 좀 더 많이 불렸을 걸
 생각하면 약간 부러워지네요♥
 린 : 하하...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마울 따름인데,
 오늘은 아침부터 쇼핑인가보지?
 유제 : 네, 실은 주계과의 친구들과 동방풍의

“다도부(茶道部)”를 하기로 해서요.
유제 : 곧장 마야씨, 카이리씨와 나눠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린 : 해에, 벌써 부활동을 결정한 건가. 꽤나 풋워크가 가벼운걸.
린 : (게다가 다도라고 하면… 하하, 스승님을 떠올리게 된다랄까.)
유제 : 린 교관님?
린 :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린 : 아무튼 즐기면서 하도록 해. 나도 응원할 테니까.
유제 : 후후,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교관님도 여유가 되면
부실에 놀러와 주세요♪
린 : (하지만 다도부의 준비인가…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린 : (눈에 띄는 시설들을 전부 돌아보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말을 걸어 볼까.)

-유제와 함께 보낸다(ミュウゼと過ごす)를 선택.

린 : 유제,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린 : 다도에는 <팔업일도류>로서 다소 통하는 것이 있어서 말야.
유제 : 후후, 정말인가요? 교관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다니♥
유제 : 실은 쇼핑하는 것 이외에도 기숙사에서
옮겨야할 물건이 꽤 많아서요.
유제 : 죄송하지만 화물을 나누어서 맡아 주시겠어요?
린 : 응, 물론이지.

- 그 후에 린은 쇼핑을 마친 유제와 나누어서
다도부 예정교실에 화물을 옮기고…
그대로 남은 멤버들이 도착할 때까지 부실의 정리를 돕게 되었다.

유제 : 고맙습니다. 교관님. 부실의 준비까지 도와주시다니.
린 : 하하 이왕 하는 김이니.
린 : 하지만 이렇게 보면 동방풍의 양식을 잘 적용해냈다고 할까…
역시 그리워지는 걸.
유제 : 후후---윤 카파이 노사(老師)님을 떠올리시나요?
린 : … 용케 알고 있네?
린 : 검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승님의 이름까지…
유제 : 뭐니 해도 린 교관님에 대한 일이니까요♥
유제 : …농담이고요, 사실을 말하자면 저, 본가가
라마르주의 백작가(家)예요.

유제 : 그래서 그 내전에 대한 것은 특히나 여러모로 들었거든요.
린 : 과연, 백작가... 그것도 라마르주 출신이었나.



린 : (내전을 일으킨 귀족연합의 총 주재자(總主宰), <카이엔 공(公)>의 영지(領地)...) 그곳의 백작 정도라면 여러모로 소문을 들었을 테지.)
유제 : ...? 아아, <젯빛 기사>라던가 그런 소문이 아니라.
유제 : “예전의” VII반 여러분에 대한 것이나 여동생분, 황녀전하 방면의 소문이에요♥
린 : (...어제의 그것도 분명 그러한 것이었겠군.)
유제 : 후후, 죄송해요. 왠지 여러모로 헛갈리게 한 모양이네요.
유제 : 덧붙여 “다도부”에 관해서는 동방의 핏줄이 흐르는 마야씨와 상담을 해서 카이리군에게 권유한 결과인데요...
유제 : 저도 할아버님, 이글렛 백작에게서 여러모로 배워서 흥미는 있었어요.
유제 : 매우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계셔서 외국의 도구나 장신구류 등에 견식이 넓은 편이네요.
린 : 해에, 그거 꽤나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야 할지.
린 : 뭐, 나도 동방문화에 관해서는 다소 스승님에게 배웠으니까.
린 : 이후에도 만약 도울만한 일이 있으면 사양 말고 말을 걸어줘.
유제 : 어머니, 정말인가요? 후후, 정말 고맙습니다♥
유제 : --후후, 그럼 린교관님.
유제 : 이번과 이후의 답례를 겸해서 “좋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린 : 유제...? 그런 곳에서 뭐하는 거야?
유제 : 후후, 금방 준비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린 : 저, 정말로 뭘하고 있는 거야!?
린 : (이런 장면을 누군가에게 보였다간---- 아, 아무튼 나는 밖으로...!)
유제 : 앙, 기다려주세요. 이제 조금이니깐요... 영차.
유제 : ----후후, 됐어요.
유제 : 어라...? 어쩌서 눈을 감고 계신 건가요?
린 : 안돼, 유제...! 이런 일은...!
유제 : 후후, 부디 눈을 뜨세요. 저를 봐주세요, 교관님...
유제 : ----모처럼의 부활동 유니폼의 첫 피로식이니까요♥
린 : 에?
유제 : 후후, 어떤가요? 이전에 할아버님께서 사주신 동방의 “기모노”예요.
유제 : 다도부에서 쓰자고 생각해서...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린 : 아, 잘 어울려----가 아니라!

린 : 유제, 아무리 그래도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유제 : 우후후, 하지만 처음은 교관님이 봐주셨으면 해서요♥

유제 : 그건 그렇고 후후. 방금은 “뭉클” 상상해서 그렇게 당황을 하셨던 건가요?

린 : (이런, 이런…쉽게 볼 수가 없군, 정말로.)

-그 후, 다른 다도부 멤버도 준비를 끝마치고 부실에 모이기 시작해… 린은 새삼 도움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들으며 그 자리를 뒤로 하고 부실을 나섰다.

유제의 인물노트 ① 갱신.

다시 대화.



카이리 : 으음… 그건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정말로 예쁘네요.

유제 : 후후, 감사합니다.

마야 : 흠… 조금 부끄럽네요.

유제 : 덧붙여 마야씨의 기모노는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셨는데.

마야 : 네, 그리고 이 검은 머리도 어머니에게 물려 받은 거예요.

마야 : 어머니가 사랑하신 동방문화…

부활동을 통해서 즐길 수 있다니 정말로 기뻐요.

카이리 : 마야씨…

린 : (흠, 그녀에겐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

다시 대화.



마야 : 흠, 하지만... 카이리군도 여성의 기모노가 어울릴 듯하네요.
유제 : 후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카이리 : 자, 잠깐---저는 어엿한 남자란 말이에요!
린 :



Kizuna Event !!

※ 분교 중앙안뜰에 있는 알티나와 대화.



알티나 : 다른 분들은 이미 부활동을 선택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모양이네요.
알티나 : ...아직 오전 중인데 액티브(활동적)하네요
린 : 뭐, 결정 못하면 분교장님의 “학생회”에 강제입부, 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린 : 알티나는 뭔가 할 수 있을만한 부활동은 찾을 수 있어 보여?
알티나 : 아니요... 어제부터 검토는 계속 했습니다만.

알티나 : 시험 삼아 학교에 와보기는 했는데
 특별히 힌트라고 할만한 힌트는 떠오르지 않고...
 알티나 : 부활동 선택...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인 듯하네요.
 린 : (꽤나 고전하고 있는 듯하군... 어찌지, 도움을 줘볼까?)

- 알티나와 보낸다(アルティナと過ごす) 선택



린 : ---별수 없군. 알티나. 나도 잠시만 부활동 선택에 함께 해주지.
 알티나 : 에...괜찮으신가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라고 어젠...
 린 : 뭐, 너무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싶어서 말야.
 린 : 우선은 참고로 다른 모두가 하려고 하는
 부활동들을 들으러 다녀보자.
 린 :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 자신이겠지만
 ...이 정도면 어때?
 알티나 : 하아... 뭐, 알겠습니다. 난이도는 다소 내려갈 듯하고요.
 알티나 :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해서 린은 알티나와 동행해서 부활동 선택의 검토를 개시했다. -
- 이미 부활동을 하기 시작한 학생이나 설립을 위해서 부원을 모으고 있는 학생...
- 그들을 하나씩 찾아 방문해서는 뭐가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알티나에게 맡긴 채, 후보군을 좁혀나갔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티나가 흥미를 가진 것은---



레오노라 : 좋아, 좋아, 그대로!!
 알티나 : ... 하아하아.
 레오노라 : 아쉽네. 이정도 까지인 모양이네.
 린 : 수고했어, 알티나!
 알티나 : 후우, 최후까지 헤엄치질 못했어요.
 린 : 하하, 아까웠어.
 레오노라 : 후후, 하지만 헤엄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잖아?
 레오노라 : 그런 거 치곤 폼은 깨끗했고 꽤 괜찮은 편 아닐까.
 알티나 : 네, 적성은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알티나 : 물속에 있으면 왠지 그리운 듯한 감각이 있고요.
 스타크 : 그리워? 아아, 가끔 들곤 하는 모친의 태내 속에 있는 감각 같은 거 말하는 거지?
 웨인 : 으음, 어떤 의미론 재능이라는 건가...
 나도 질 수는 없겠는 걸.



알티나 : 글썄요? 모체의 태내에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만.
 레오노라 : 아하하, 그야 그럴 테지. 기억하고 있는 편이 신기한 거야.
 스타크 : 하하... 뭐 어쨌든 이후를 기대해야 할 듯하군.
 린 : ... 그래서, 알티나. 수영부에 입부할래?
 알티나 : ...질문의 의미가.
 알티나 : 소거법으로 생각하면 그 이외에는 없는 것 아닌가요?
 린 : 소거법이 아니야, 의지에 대한 걸 말하는 거야.
 린 : 남은 건 자신이 이후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떤지의--
 린 : 알티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야.

알티나 :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티나 : ...그러네요.

알티나 : 전신운동이고 계속하면 효율 좋게 체력을 높일 수 있을 듯하네요.

알티나 : 현재 제 부활동으로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해요.

알티나 : 레오노라씨. 입부허가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레오노라 : 하하, 별로 내가 지휘하는 건 아닌데 말야.

레오노라 : 환영할게, 알티나.

스타크 : 하하, 잘 부탁해.

웨인 : 같이 함께 절차탁마 하자고!

구스타프 :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알티나 : ...이런 느낌인가요?

린 : 하하... 뭐, 일단은 합격이야.

(남은 건 이후로의 학생생활 나름, 이지만)

알티나와 대화.



알티나 : 우선은 좀 더 길게 헤엄칠 수 있도록 수영에 몰두해 보겠습니다.

알티나 : 무엇보다 임무에는 체력도 필요하니까요.

레오노라와 대화.



레오노라 : 알티나인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걸.
 레오노라 : 뭐, 모처럼이니 여러모로 살펴봐주도록 할까.

웨인과 대화.

웨인 : 체지방이 적으면 물에 빠지기 쉬울 듯합니다만...
 솔직히 상상이상이었습니다.



웨인 : 설마 알티나랑 마찬가지로 코스의 절반도
 해엄치지 못할 줄은... 한심하네요.
 웨인 : 모처럼 스타크가 성의껏 가르쳐주었는데...

스타크와 대화.



스타크 : 제 각자 생각하는 것은 있는 모양이지만--
시작치고는 좋은 편일려나요?

스타크 : 뭐, 이후도 어떻게든 순조롭게 활동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아 다행입니다.

다시 대화.

스타크 : 자 그럼, 잠시 휴식하고 다시 한 번, 헤엄친 후--
오늘은 끝나칠 까봐요.

구스타프와 대화.



구스타프 : 흠, 그런데 보고 있자니 모두들モチベーション이 높은 걸.
구스타프 :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 모든 이벤트, 퀘스트를 완료 후 본교사 1층의 군전략 회의실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3시까지의 프리핑... 아직 미묘하게 시간은 있군.)

린 : (그 외에 남겨진 일이 있으면 처리해두는 편이 좋을 지도 몰라.)

- 브리핑 개시를 기다린다(ブリーフィング開始まで待つ)를 선택.

이윽고... 미하일, 토와, 란돌프에 오렐리아 분교장도 모이게 되고--
정각대로 오후 3시에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미하일 소령 : ...
 토와 : 저기...
 란돌프 :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시작하지 않는 겁니까?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그리 재촉하지 마라.



오렐리아 분교장 : <특별 커리큘럼>--- 나조차 그 상세사항은 몰라.
 오렐리아 분교장 : 그쪽의 주임교관과 이제부터 올 연락책 밖에는 말야.
 미하일 소령 : ...기다리시게 해서 면목 없습니다.
 린 : 연락책... 인가요.
 토와 : 그렇다는 것은 철도헌병대 쪽 사람이---
 청년의 목소리 : 미안해, 기다리게 해버렸나~?
 토와 : 옛...?



란돌프 : 이 목소리---
 린 : ... 설마...!!
 린 : 렉터 소령...!! 게, 게다가--
 소녀의 목소리 : 니히히...
 린 : ---밀리엄!!



파란 머리의 소녀 : 오래간만이야, 린!
 린 : 옥, 그러니까, 갑자기 태클은...
 린 : ... 것보다, 하하...
 파란 머리의 소녀 : 에헤헤...
 밀리엄 : 이야, 때를 써서 렉터랑 같이 오길 잘했어!
 밀리엄 : 또 다음 주부터 임무라서 말야-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밀리엄 : 졸업 축하해, 린. 것보다 키가 무진장 커졌네-!?
 린 : 하하... 5리주 정도지만 말야.
 린 : 밀리엄은 변함이 없네. 건강해보여 다행이야--
 란돌프 : 흠음...?
 토와 : 아하하... 밀리엄. 오래간만이야!
 붉은 머리의 청년 : 이런, 이런.
 렉터 소령 : 오랜만이야, 슈바르처. 여기서 만나는 것은 본래 예상외지만,
 렉터 소령 : 나 참, 사람이 애써 고생한 걸 단번에 빼앗겨 버린 기분이라고.
 린 : ...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린 : 하지만, 오래간만이네요. 작년 말 이후인가요.
 렉터 소령 : 아아, 그렇게 되겠지.
 렉터 소령 : 허셀 여사도 오래간만이군. 현병소령 상대로
 꽤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 아냐?
 토와 : 아하하... 그 정도 까지는.
 미하일 소령 : 괜한 트집은 그만두실까, 아란들 소령.
 렉터 소령 : 그리고---
 렉터 소령 : 너도 오랜만이군. 올렌드.
 렉터 소령 : 우리의 "리더"가 무리한 소릴 한 모양이던데?
 란돌프 : 하하, 너 답지 않은 소릴하는군. <스케어 크로우(허수아비)>.
 란돌프 : 우리야말로 너에게 빛은 있지만. 그것도 지금에 와선 뭐한 얘기잖아.

란돌프 : 같은 셈(=)으로 치자고. 같은 셈으로 말야.



렉터 소령 :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렉터 소령 : ...그리고...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왜 그러지? <철혈>의 총복(懐刀).

오렐리아 분교장 : 나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라. 얼마든지 인사를 교환하도록 해.

렉터 소령 : ... 아니요. 처음 뵈겠습니다.

렉터 소령 : 제국군 정보국 특무소령, 렉터 아란들입니다.

-----이후 기억해주시길.



오렐리아 분교장 : “처녀(乙女)”나 “성장(城將)”과 달리 분명 보는 것은 처음이다만.

오렐리아 분교장 : ㅋㅋ, 내가 여기에 부임한 “흐름”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처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말이지?
미하일 소령 : ...으...
렉터 소령 : 하하, 과분한 말씀에 어쩔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밀리엄 : (무, 무섭다... 저게 <황금 나찰>인가.)
린 : (받아치는 렉터 소령도 역시나 얼굴 낮이 두꺼운 편이지만...)
토와 : (우으으... 심장에 안 좋아.)
오렐리아 분교장 : 뭐, 됐어. 슬슬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지.
오렐리아 분교장 : 기묘하게도 여기에 철도헌병대와 정보국의 소령나리들이 있다---
오렐리아 분교장 : 자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지 기대가 되는군?



린 : ...

토와 : 이, 이건...

밀리엄 : ... 과연...

란돌프 : 하...예상 이상이군. ----아니 기대 이하인가.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이거야말로 <버릴 말>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오렐리아 분교장 : 입안(立案)은 어느 조직에서 한 거지? 미하일 주임, 아란들 소령?

미하일 소령 : ...정보국입니다만. TNP도 협력했습니다.

렉터 소령 : 뭐, 확실하게 말하면 길리어스 오즈본 재상 각하.

렉터 소령 : 그리고 크로스벨 총독 루파스 알바레아 각하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죠.



토와 : 하, 하지만 이 계획서는 터무니없어요!!

토와 : [제국 서측에, 불온한 움직임 포착.]

토와 : [부당한 항쟁을 일으키는 복수의 염병단, 그리고 <결사 우로보로스>----]

토와 : [신설된 돌즈 제2분교를 활용해 각지의 대처에 임하게 할 것.]...!

토와 : 막 입학한 학생들을 상황에 따라선 “실전”에 투입하는--

토와 : 이런 건 완전히 “희생양”이잖아요!?

린 : ...선배...

란돌프 : 뭐, 그 말대로군.

미하일 소령 : ---하지만, 이것도 <제2분교>의 설립이 인정받을 수 있던 조건 중 하나야.

미하일 소령 : 알고 있다시피, 제국은 현재 동측 국가<칼바드 공화국>과 심각한 레벨의 긴장관계에 있다.

미하일 소령 : 국경부근에서의 소규모 전투가 끊이질 않고 바로 어제도 놀드 고원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있던 참이다.

린 : 놀드 고원에서...!?

토와 : 그, 그랬었나요...

란돌프 : ...애당초 그 긴장감이 어째서 벌어지는가 하는 얘기인데 말이지.

렉터 소령 : 뭐, 툭 까놓고 말해서 정보국도 TMP도 완전 바쁜 상대라서 말야.

렉터 소령 : 크로스벨과 노잔브리아, 제국의 동측 전역에서 한창, 정보전을 반복해서 벌어나가고 있는 중이란 거야.

밀리엄 : 응-, 실제로 그럴단 말이지.

밀리엄 : 나도 이후에 크로이첸 주(州)에서 그것의 대처를 할 생각이었고.

린 : 그랬었군...

란돌프 : 것보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미하일 소령 : ---그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제국 서측에 대한 경계레벨의 저하다.

미하일 소령 :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올”가능성을 우리들은 우려하고 있다.

토와 : 아...

린 : ...그게 방금 전의 계획서에 이어진다는 건가요.

렉터 소령 : 1년 전의 제국 내전과 노잔브리아에서의 북방전역---



렉터 소령 : 크로스벨 소란이나 리벨의 이번에서도 암약했었던 의문의 결사

<몸을 먹는 뱀(우로보로스, 身喰らう蛇)>

렉터 소령 : 대로는 연동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전쟁의 프로인 10 몇 개의 엽병단...

렉터 소령 : 정보국의 분석으로는 이미 제국 본토에서 제각각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렉터 소령 :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 나름의 “억지력(抑止力)이란 게 말이지.

미하일 소령 : ...물론 우리들로서도 전투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 땅에 학생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미하일 소령 : 어디까지나 체재는 “연습”--- 만에 하나의 상황을 위해 기갑병들의 최신장비등도 준비를 했던 거다.

미하일 소령 : 더욱이---제2분교 전용으로 하는 연습용 장갑열차도 완성했다.

린 : 연습용 장갑열차...!?

란돌프 : 그렇게까지 하거나...!?

밀리엄 : 아무리 그래도 너무 배포가 큰 거 아냐!?

렉터 소령 : 뭐, 그 부분은 다른 쪽 의향과 예산투입에 의한 결과지만.

렉터 소령 : 게다가 <젓빛 기사>에 크로스벨의 손꼽는 전술가, <붉은 날개(카레이저스)>를 통솔했던 재원(才媛)까지 구성되어 있어.

렉터 소령 : 학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쪼록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거야.

토와 : 으...

란돌프 : 터무니가 없군...

린 : ...



オーレリア分校長
話してもらおうか。
最初の演習地の場所と日程を。

오렐리아 분교장 : ---얘기는 이해했다. 꽤나 흥미 깊은 내용이군.
오렐리아 분교장 :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해 실전까지도 상정을 한 지방연습--
오렐리아 분교장 : [상재전장], [세상의 초석이 되라]는
두 가지 이념의 체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토와 : 아...

린 : ... 그건...

오렐리아 분교장 : 제2분교, 확실히 승낙하도록 하지.

오렐리아 분교장 : 얘기해보실까. 최초의 연습지의 장소와 일정을.

미하일 소령 : ...알겠습니다.

렉터 소령 : 실습지는 남부 사자란드 주, 옛 수도(舊都) 센트 아크 근처입니다.

렉터 소령 : 일정은 4월 21일, 금요일 저녁--

렉터 소령 : 전용 열차<데어브링거 호>를 이용해서
현지를 향해 출발하게 될 겁니다.

린 : 후우...

토와 : ...결정된 일이라곤 해도 아무래도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밀리엄 : 응, 설마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얘기였다니.

밀리엄 : 모처럼 놀러 왔는데 마주할 면목이 없다랄까...

토와 : 아하하, 밀리엄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니까.

린 : 그래---설립되었던 시점에서 이 노선은 결정되었던 거겠지.

린 : 제국의 서측이 약화되는 것은 어렵듯이 느끼고 있던 부분이고.

밀리엄 : 으음-, 하지만 정보국의 인간으로서
아무래도 면목이 없다 랄까.

밀리엄 : 먼저 알고 있었다라면 유시스 쪽에 정보를 흘려서
린에게 전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린 : 아니, 그건 좀 좋지 않아.

토와 : 수비의무라는 것이 어떤 일에도 존재하니까.



미하일 소령 : 뭐야, 아직 있었나.
 미하일 소령 : 아아, 허셀 교관. 이동계획은 다음주초까지 부탁하지.
 토와 : ... 알겠습니다.
 밀리엄 : 렉터, 벌써 돌아가는 거야?
 렉터 소령 : 아니, 정보국의 데이터를 건네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야.
 렉터 소령 :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 적당히 시간 때우고 있어.
 렉터 소령 : ---맞아, 슈바르쳐. 가능하다면 베이비시터를 맡기고 싶은데?
 린 : 네... 기꺼이.
 밀리엄 : 뽀-뽀-, 베이비시터라니 뭐야-!
 밀리엄 : 에헤헤, 뭐 괜찮나. 린이 안내를 해준다면야.
 미하일 소령 : 나 참, 긴장감이 없군... 모쪼록 문제는 일으키지 마라?
 렉터 소령 : 그럼, 나중에 보자구-.
 토와 : 후우... 나도 잠시 장서실에서 자료조사를 하러 갈게.
 토와 : 연습에 대한 걸 생각해보면 조사해두고 싶은 자료가 있거든.
 린 : 그런가요...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밀리엄 : 회장은 예전부터 너무 열심이였으니
 조금은 어깨의 힘을 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토와 : 아하하... 응, 염두에 둘게.
 토와 : 자 그럼,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있으면 통신으로 연락해?
 밀리엄 : 아하하, 하지만 다행이다. 회장과 같은 직장이라서.
 밀리엄 : 여전히 여러모로 일을 맡아서 고생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린 : 하하, 나도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만큼 되돌려 줬으면 하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린 : --것보다 어떻게 할래? 분교나 시내를 전체적으로 둘러볼래?
 밀리엄 : 응, 잘 부탁해! 그럼 어서 렛츠 고!!

- 렉터의 인물 노트 갱신 -
- 밀리엄의 인물노트 갱신 -
- 인연 포인트가 1포인트 추가 -



Side Event !!

본교사 1층 분교장실에 있는 오렐리아 분교장과 대화.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정보국의 “화이트 래빗(白兎)인가…

오렐리아 분교장 : 너도 슈바르처와 함께 본교에
동학했다고 들었는데…

밀리엄 : 응, 맞아-!

밀리엄 :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이 진짜 <황금 나찰>인가…

밀리엄 : 응, 응,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네-!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 그거 영광이로군.

린 : 밀리엄… 너무 무례한 소리는 하지 말도록 해.

오렐리아 분교장 : 후후…동창생이라서 그런지 친해서 보기 좋군.

오렐리아 분교장 :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마음껏 본교를 보고 돌아다니도록.

오렐리아 분교장 : 우리 쪽에선 특별히 아무 것도
제한하는 건 없으니깐 말야.

밀리엄 : 에헤헤, 고마워-!

다시 대화.

오렐리아 분교장 : 흠… 하지만 블랙 래빗(黑兎)와는
여러 면에서 닮은 듯하면서도 닮지 않았군.

오렐리아 분교장 : 뭐, 좋아. 아무튼 맘껏 본교를 돌아보도록.



Side Event !!

2층 VII의 옆 전산실에 있는 미하일, 렉터와 대화.



밀리엄 : 저기- 렉터. 아직 더 걸릴 거 같아-?
렉터 소령 : 아직이라니 너. 작업 시작한지 방금 전이라고.
미하일 소령 : ...받을 예정의 데이터에는 기밀사항이 포함된다.
미하일 소령 : 슈바르처 교관, 신속하게 그 꼬맹이를 데리고 퇴장을 해주겠어?
린 : 죄, 죄송합니다...

렉터 소령 : 뭐, 모처럼의 기회잖아.
렉터 소령 : 동창생끼리 사이좋게 시내라도 구경하고 오라고.

미하일 소령과 다시 대화.

미하일 소령 : 후우...그 꼬맹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날아가 버리는군.
밀리엄 : 뿌- 뿌우!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에 있는 교환샵 <나인바리>의 카운터에 있는 강아지 켈베로스와의 대화.



밀리엄 : 아, 멍멍이다~!
 켈베로스 : 쿵쿵!
 진고 : ...어이, 뭐하는 거야-.
 진고 : 여기서는 군인도 정보기관도, 수상한 녀석은 전부 손님이라고 가르쳐줬잖아.
 진고 : 손님에게 짓지 마.
 켈베로스 : 크, 끄응...
 밀리엄 : 아하하...미안해. 나 때문에.
 밀리엄 : 아, 하지만 내 정체를 용케 알았네~! 훌륭해, 훌륭해!
 켈베로스 : 웡♪
 린 : 것보다 괜찮은 건가? 방금의 대화는...

다시 대화.

켈베로스 : 웡♪
 밀리엄 : 니히히, 나중에 또 놀자~!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교환샵 <나인바리>에 있는 란돌프와 대화.

란돌프 : 여어, 너도 쇼핑이나?
 란돌프 : 하하, 하지만 이 가게는 여전한 물품 진열이로군.
 린 : 아아, 분명 크로스벨에 본점이 있다고 했던가요.
 린 : 자주 이용했었던 건가요?
 란돌프 : 뭐, 어디까지나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그럭저럭.
 란돌프 : ㅋㅋ, 하지만 저 간판 소녀의 놀랄만한接客 태도도 그리울 정도로군.
 린 : 하하... 확실히 그녀는 독특하네요.

다시 대화.



란돌프 : 하지만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몰랐는걸...
 란돌프 : 뭐랄까, 위험한 쪽으로 길들일 듯하단 말이지.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교환샵 <나인바리>에 있는 진고와 대화.



진고 : 으음- 역시 횡령품은 질이 그냥 저냥이네-.
 진고 : 약간 실패했네-. 제국은 엽병단이 많으니까
 수요는 있는데 말야-.
 진고 : 손님, 서브머신건 필요없어-? 싸게 해줄게-.
 린 : 얘기 나온 김에 물겠는데 그건...위법 물건인 건 아닌 건가?
 진고 : 응? 보증서 붙은 게 좋은 거야-? 약간 비싸질 텐데?
 린 : 아니, 아무 것도 아니야... 지금 것은 잊어줘...

다시 대화.

진고 : 최근의 횡령품은 질이 나쁘네. 으음-, 정비하기 귀찮고----

진고 : 특가 코너이라도 쳐 박아둘까-.
린 : (이런, 이런. 이걸 완전히 그레이존인데...)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여관주점 <바니즈>에 있는 애쉬와 대화.



애쉬 : 어라, 이거. 이거. 슈바르체 교관님 아니심까.
애쉬 : ㅋㅋ, 괜찮으시면 교관님도 함께 마시지 않겠습니까?
린 : ...만약을 위해서 확인하겠는데 그건 눈 알콜이지?
애쉬 : 뭐, 보시다시피.
애쉬 : --것보다 분명 당신도 아직 성인이 될락 말락한 나이 아니었던가?
애쉬 : 나랑 2, 3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교관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말임다~
린 : ...뭐, 내가 아직 미숙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린 : 너도 조금은 그 태도를 고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애쉬 : 네, 네. 모쪼록 명심합쇼-.
린 : (후우...이 상태라면 란돌프씨도 고생이겠는 걸.)

다시 대화.

애쉬 : 것보다 단지 2, 3살 차이로 연상인 체하는 것도 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쉬 : 아, 덧붙여 지금 것은 농담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 주십셔-.
린 : (후우...뭐랄까 전도다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Side Event !!

리브스 여관주점에 있는 카인과 대화.



카인 : 내전 중에는 리브스 군교도 긴장상태였었지.
카인 : 정규군과 귀족연합군이 대치하거나 해서 말야.
한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카인 : 게다가 그 귀족연합군의 장군님이 분교장이 되어서
돌아올 줄이야. 세상일은 모르는 거 같아.
린 : (동감한다고 밖에는 대체 할 말이 없군...)
밀리엄 : (아하하, 무서운 것은 여전한 모양이지만 말야-.)



Side Event !!

리브스 여관주점 <바니즈>의 카운터에 있는 바니와 대화.



바니 : 지나와 데이지는 제가 남자 손으로 키운 딸들이라서 말이죠.
 바니 : 아무래도 남자 부모라 고생을 시켰지만
 두 아이 다 훌륭히 자라 주었습니다.
 바니 : 남은 건, 그렇네요. 좋은 사람과 맺어지면 안심이겠습니까만...
 바니 : 흠... 교관님, 어떠신가요?
 린 :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니 : 그렇습니까... <젯빛 기사>님이 상대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까만...
 밀리엄 : (흐음? 그런가... 린도 지금에선 유명인이니까~.)
 밀리엄 : (니히히, 빈틈이 없네, 요런요런~!)
 린 :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니까.)

다시 대화.

바니 : <젯빛 기사>님이 상대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까만...
 바니 : 흐음, 아무래도 송구스러운 느낌도... (힐끔)



Side Event !!

리브스 여관주점 <바니즈>앞에 있는 데이지와 대화.



데이지 : 방금 새로 부임 온 시스터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네주었는데...
 데이지 : 정숙한 몸동작... 아침안개가 흘러내릴 듯한 웃음...
 데이지 : ...꽤 하는 걸!!
 데이지 : 것보다 나도 다음은 시스터 복이 입고 싶은걸~!

다시 대화.

데이지 : 그 시스터는 정말 파괴력 발군이었어~.
 데이지 : 나도 메이드 복 다음엔 시스터 복을 노려볼까나~.



Side Event !!

리브스 시내 베이커리 카페 <루셋트> 앞길에 있는 프랑키와 대화.



프랑키 : 어, 어이... 할머니, 괜찮은 거야?
 차미 할멈 : 응, 조금 미끄러진 것뿐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프랑키 : 아니, 완전히 벌러덩 넘어졌잖아!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프랑키 : 자, 업어줄 테니 확실하게 잡아라고.

다시 대화.

프랑키 : 내가 더 놀랐어...
 프랑키 : 할머니, 아픈 곳은 없어? 정신을 차리라고?

차미 할멈과 대화.

차미 할멈 : 어머니, 친절하기도 하지.
 차미 할멈 : 그럼 신세를 지도록 할까.



Side Event !!

라디오 방송국 <트리스타 방송>의 카운터에 있는 린리와 대화.

린리 : 저는 라디오라는 건 좀 더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린리 : 예를 들면 출연하는 사람들은
모두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린리 : 그래서 취직을 한 건데... 매일 잡무뿐.
동기는 괴팍한 뽕크뿐이고.
린리 : 아-정말, 재미없어!

다시대화.



린리 : 라디오 방송국에 취직하면 뭔가 멋진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린리 : 이런 건 이미지랑 전혀 틀려~!



Side Event !!

라디오 방송국 <트리스타 방송> 응접실에 있는 뽕크와 대화.



몽크 : 어라, 린과 함께 있는 것은 밀리엄이잖아.
 몽크 : 하하, 이거 참 오랜 만이네.
 밀리엄 : 니히히, 뭐니 해도 일 년 정도 만에 보는 거니까 말야-.
 밀리엄 : 몽크도 건강해보여 다행이야! 조금은 분위기가
 밝아진 거 같기도 하네?
 몽크 : 후후, 이 일을 시작하고 만남도 늘어서 일까나?
 몽크 : 그건 그렇고 린은 학생 때처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는 모양이야.
 몽크 : 덧붙여서 수업 등으로 리브스 이외의 장소에 갈 예정은 없어?
 린 : 하하, 실은...

- 몽크에게 특별 연습의 얘기를 했다. -



몽크 : 헤에, VII반에서 했던 것을 이번엔 분교 전체가.
 몽크 : 후후, 이거 또 좋은 라디오 소재를 기대할 수 있겠네.
 린 : 하하, 그리고 보니 몽크는 우리들의 활동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 소재를 만들고 있었던거지.
 몽크 : 후후후, 뭐. 모두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 나름으로 각색을 하면서 말야.
 몽크 : 하지만 아쉬운 걸, 분교 학생들을 취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몽크 : “누군가”가 소재 거리를 제공해주면 고맙겠는데 말야.
 린 : 그 말은 즉...
 밀리엄 : 린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야?
 몽크 :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몽크 : 너도 일 때문에 갈 테고 뻔뻔한 부탁이라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말야...
 몽크 : 린이 연습 장소에서 소재 거리를 제공해준다면
 방송 제작도 수월해진다 말까.
 몽크 : 트리스타 방송을 좀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디 협력을 해주지 않을래?
 린 : 그런 사정이라면... 못할 건 아닌데.
 린 : 무슨 일이 있으면 ARCUS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야?
 몽크 : 그래주면 될 거야. 정말 고마워. 린.
 몽크 : 이야, 역시 가져야할 건 친구라니까!
 밀리엄 : 아하하, 몽크도 왠지 교섭에 능숙해졌네.
 린 : 하하, 내 말이.

다시 대화.

몽크 : 그럼 린. 너에게서 올 소재 거리를 즐겁게 기다리고 있을게.

몽크 : 후후, 역시 가져야할 건 친구라니까!

몽크 : 실은 오늘도 지금부터 미팅이 2건이나 있어서 말야.
너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린 : 하하, 그랬었군. 하지만 몽크도 꽤나 바빠졌다 알까...

린 : 그런데 라디오 방송의 내용 같은 걸 조정하는
미팅인 거야?

몽크 : 응, 오늘은 각본의 체크와 캐스팅이야.

몽크 : 그게... 근시일 내에 시작할 쏫 드라마의 디렉터를
담당하게 되어서 말야.

밀리엄 :헤에~, 그랬었구나~!

린 : 하하, 그거 대단한 걸...



린 : 입사하자마자 방송을 담당하게 되다니 역시 몽크라고 할까.

밀리엄 : 맞아, 맞아, 역시나 라디오 오타쿠~!

몽크 : 아하하... 썩스러운 걸

몽크 : 그렇다곤 해도 아침 이른 시간대의 마이너한 방송이지만 말야.

몽크 :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할 거 같아.

몽크 : 재미있으면 분명 청취자도 늘어날 테니까
후후후... 의욕이 넘치는 걸!

밀리엄 : 니히히, 나도 기회가 있다면 들어볼까나?

린 : 몽크, 우리들도 응원할게. 모쪼록 힘을 내길 바라.

몽크 : 응, 고마워. 두사람 모두!

다시 대화.

몽크 : 이 쏫 드라마는 애당초 상사인 마이켈 디렉터가 기획한 것이야.

몽크 :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만 해.

몽크 : 지금은 아직 한창 마이너하지만 재미있으면
분명 청취자도 늘어날 거야.

몽크 : 후후후...의욕이 넘치는 걸!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부띠끄 <라팡>의 카운터에 있는 마커스와 대화.



마커스 : 재봉도구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뒷골목에 새로 생긴 <나인바리>라는 가게에 갔었는데 말야…
 마커스 : 머신건을 든 여자아이가 조준 체크를 하고 있었어…
 마커스 : 그 가게는 대체 뭐지…?
 설마 테러리스트라던가 하는 건가…?
 린 : 교환상점 <나인바리>… 역시 완전히 “붕 떠있는”상태로군.)

다시 대화.

마커스 :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상점은 아닌 듯한…
 마커스 : 나, 나의 착각인 건가…



Side Event !!

리브스 중앙광장의 벤치에 앉아 있는 발레리와 대화.

발레리 : …
 린 : (…아무래도 책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군.)
 린 : (방해하는 것도 미안하니 조용히 물러나자.)



Side Event !!

리브스 예배당에 있는 시스터 로지스와 대화.



시스터 로지스 : 밀리엄씨...
 밀리엄 : 앗호~! 로지스짱아!
 밀리엄 : 아하하, 정말로 시스터가 되었네~!
 시스터 로지스 : 놀랐어요. 정말로 오래간만이네요.
 시스터 로지스 : 설마 리브스에 계셨다니.
 밀리엄 : 니히히, 정보국의 임무 중 검사검사~.
 밀리엄 : 그건 그렇고 로지스... 키가 큰 거야?
 왠지 가슴도 커졌고...
 밀리엄 : 뿌우~, 납득이 안가~!
 시스터 로지스 : 미, 밀리엄씨... 그렇게 빨리 보시면...
 린 : 남을 곤란하게 하지 마.
 린 : 후우... 미안해, 일하는 중에.
 시스터 로지스 : 아니요...
 시스터 로지스 : (...하지만 "일전의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는 편이 좋을 듯하네요.)
 린 : (하하... 정말로 미안해.)
 밀리엄 : 응-...?

다시 대화.

밀리엄 : 나 역시 꼬꿈은 키가 컸는데도-. 모두는
 훨씬 더 커졌단 말이지.
 밀리엄 : 로지스는 성직자인데도 가슴까지...
 시스터 로지스 : 아, 아하하하하...
 린 : 밀리엄, 빨리 쳐다보는 건 그만해.



Side Event !!

리비스 예배당에 있는 헨리 교구장과 대화.



헨리 교구장 : 시스터 로지는 올해부터 부임한 신입입니다만...
헨리 교구장 : 꽤나 우수해서 저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헨리 교구장 : 듣자하니 톨즈 본교의 종려생으로 재학중일 때부터 교회의 도우미를 하였다는 것 같더군요.
헨리 교구장 : 그리고 이 리브스에 부임할 줄이야.
흠, 재미있는 우연도 다 있군요.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에 있는 서점 <카네기 서점>의 레이첼과 대화.



레이첼 : 후훗,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상대는 큰일이야.
레이첼 : 계속해서 이번 한번만이라며 대전을 하게 된다니까♪
밀리엄 : 헤에~, 왠지 재밌어 보여! 나도 해보고 싶을지도!
린 : 아무래도 오늘은 시간이 좀...
린 : 뭐, 다음 기회에라도 하자.

잭과 대화.

잭 : 레이첼 누나에게는 어떻게 해도 이기질 못하겠어!
잭 : 어이, 톰! 어떻게든 해봐!!
톰 : 알았어! 우오오오...!!
톰 : 아니, 기합으론 대책이 없어~!
레이첼 : 아하하, 침착해 소년들.
레이첼 : 아무튼 오늘의 승부는 여기까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자, 어서 돌아가.
맥 : 에엣...!?
톰 : 벌써 끝~!? 너무 일러요!



Side Event !!

리브스 시내 잡화점 <여수안> 카운터의 라드 할아버님과 대화.



라드 할아버님 : 어라? 귀여운 아가씨로군.
밀리엄 : 니히히, 고마워, 할아버지!
밀리엄 : 그리고 린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린 : 잠... 야, 밀리엄.
라드 할아버님 : 와핫핫! 재미있는 아가씨로구만!
라드 할아버님 : 좋아, 그러지. 교관님하고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마. 와핫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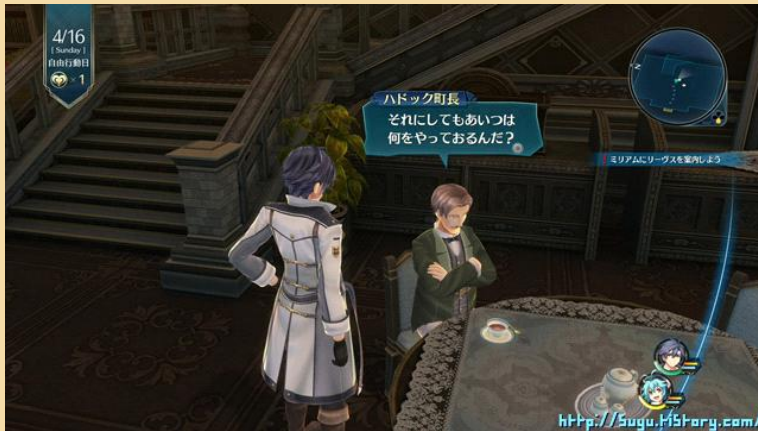
다시 대화.

라드 할아범 : 영웅이라고 유명하지만 실제 교관님은
우쭐대지 않는 호감 청년이니까 말야.
라드 할아범 : 어디 다음번엔 술잔이라도 기울이면서
서로의 모험담을 나눠보자구.
라드 할아범 : 왓핫!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촌장 저택에 있는 하독 촌장과 대화.



하독 촌장 : 그건 그렇고 그 녀석은 뭘하고 있는 거지?
하독 촌장 : 프랑키 녀석... 일도 하질 않고
매일 어슬렁거리기나 하고.
하독 촌장 : 이 집안에서 태어난 책임을 전혀 이해하질 못하고 있어!
... 나 참...

다시 대화.

하독 촌장 : 이런, 이거 교관님 아니십니까.
하독 촌장 : 이거 실례... 자식의 일로 다소 큰소리를 냈군요.
린 : 아니요, 신경 쓰지 않아주십시오.(촌장님...
자제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이군.)

몰가나 부인과 대화.

몰가나 부인 : 참아요, 그 아이도 여러모로 복잡한 거예요.
몰가나 부인 : 당신은 다소 감정적으로 대한다고요.
하독 촌장 : 으으,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다시 대화.

몰가나 부인 : 주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아이에게만은 엄격해요.

몰가나 부인 : 그 아이도 반발해서 물러나질 않고...



Side Event !!

분교 기숙사 1층 응접실에 있는 유제와 대화.



유제 : 후후, 서로 무사히 부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타치아나 : 아, 네...

타치아나 : 애쉬씨와 둘 만이라는 것은 조금 불안이긴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어요.

유제 : 후후, 응원하도록 할게요.

유제 : 그런데 계속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유제 : 타치아나씨는 이러한 작품도 읽으시나요...?(슬쩍)

타치아나 : 그, 그것은 설마...

타치아나 : 부, 부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린 : (잘 모르겠지만 왠지 불온한 느낌이 드는 군...)

다시 대화.



타치아나 : 설마, 이 학원에 여성향의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줄은...

타치아나 : 이, 이렇게 기쁜 일은 좀처럼 없어요.

유제 : 우후후,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Side Event !!

분교 기숙사 1층 식당에 있는 제시카, 마야와 대화.



제시카 : 샌디가 타준 홍차. 매우 맛있네.

마야 : 네, 역시나 요리연구회, 네요.

제시카 : 그런데... 마야는 다도부에서 차와 과자를 즐기고 온 거 맞지?

마야 : 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야 : 말차와 홍차, 만쥬와 쿠키는 위장과는 별개이니깐요.

제시카 : 그, 그럴 러나.

마야와 대화.



마야 : 동서남북, 단 것에 한하지 않고 신 것도---
마야 :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먹는다(食)”는 것은 최고의 안식이에요.
마야 : 후후, 오늘의 저녁도 기대가 되네요.

제시카와 대화.



제시카 : 보아한데 마야는 살찌기 힘든 체질인 듯하네.
제시카 : ...부러워.



Side Ev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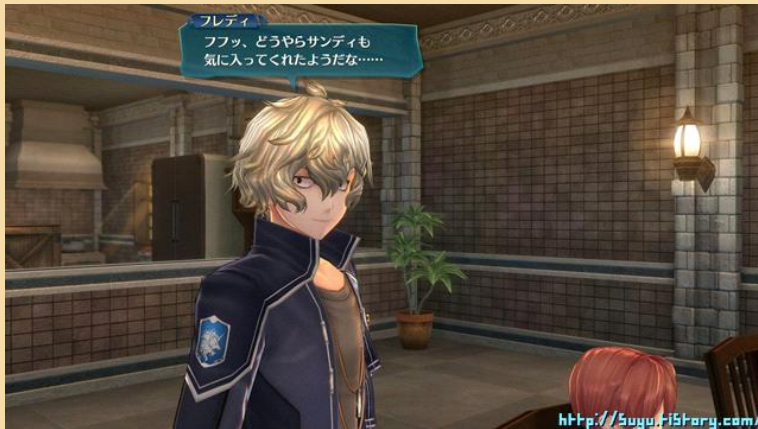
분교 기숙사 1층 식당에 있는 프레디, 샌디와 대화.



프레디 : 자, 먹어봐! 나의 자신작---
프레디 : “프레디류 메뚜기 와일드 스프 버전”이야.
린 : (이건...꽤나 개성이 강한 냄새가 나는군.)
밀리엄 : (아하하, 그러네~)
밀리엄 : (마르가리타의 요리도 여러 냄새가 나긴 했지만.)
샌디 : 으, 응...

샌디 : 그럼, 잘 먹을게!
린 : (새, 샌디... 먹는 건가?)
샌디 : 우물우물...
샌디 : ... 으으으웃...!?
프레디 : ...흠, 설마 입맛에 맞질 않는 건가?
샌디 :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 향내가 강해서...
샌디 : 하지만... 우물우물...
샌디 : ...어라... 이 뒷맛에서 오는 풍미는...
프레디 : 후후, 알아차린 건가? 숨겨진 맛을 내기 위해
 메이플 슈거를 넣었지.
프레디 : 이걸로 인해 메뚜기의 쓴맛이 좋은 느낌으로...
샌디 : 확실히... 독특하면서도 섬세한 풍미를 자아내고 있어.
샌디 : 프레디군---대단해! 이건 정말 대단해!
린 : (으음, 뭐랄까... 둘 다 대단한 편이군.)
밀리엄 : (으음. 재미는 있을 거 같지만 나도 먹고 싶지는 않을지도.)

프레디와 대화.



프레디 : “프레디류 메뚜기 와일드 스프 버전”...
프레디 : 흐흠, 보건데 샌디도 맘에 들어 해주는 모양이군...!
프레디 : 하지만 이게 참신하다니...?
 나에겐 지극히 평범한 요리인데 말이지.

샌디와 대화.



샌디 : 메뚜기의 알갱이 느낌은 저기...
여자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샌디 : 하지만 대단해, 프레디군. 이것은 어떤 의미론
혁명적이고 참신한 맛이야!



Side Event !!

그라운드 근처 격납고의 작업실에 있는 티타와 대화.



티타 : 어디 보자, 아까 건네받은 매뉴얼을 잘 확인해두지 않으면...
티타 : 에헤헤, 하지만 이 분주한 느낌... 할아버지나 엄마를
도울 때를 떠올리게 되네.
린 : (웬지 바빠 보이는 군. 게다가 슈밋트 박사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티타 : 아, 린 교관님.
티타 : 공방의 일이라면 사양 말고 얘기해주세요.
티타 : 바빠 보일 지도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여유는 있으니까요.
린 : 응... 고마워.(헌데 정말 착실한 애로군.)

다시 대화.

티타 : 공방의 일이라면 사양 말고 얘기해주세요.
티타 : 바빠 보일 지도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여유는 있으니까요.



Side Event !!

격납고에 있는 발리마르와 대화.



기신 발리마르 : 흠, 아무래도 박사가 어딘가에 외출을 한 모양이군.
기신 발리마르 : 그래서 호통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로군.
린 : ...박사님의 호통소리는 발리마르에게도 일상적으로 들리는가 보네.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루셋트>에 있는 사브리나와 대화.



사브리나 : 마, 맛있어...!
사브리나 : 평범한 버터 토스트일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나 맛이 있는 거야...?
사브리나 : 가게주인이 미녀라서...?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Side Event !!

리브스 시내의 베이커리카페 <루셋트>의 카운터에 있는 리자와 대화.



미리엄 : 꿀꺽... 매우 맛있어 보이는 빵가게다!
 리자 : 후후, 안녕하세요. 아무 거나 맘에 드는 빵을 골라보세요.
 미리엄 :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린 : 워, 워... 한 개나 두 개만 골라.

다시 대화.

리자 : 후후, 빵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 느긋이 고르세요.
 리자 : 딱딱한 바깥쪽에 달콤한 버터빵...
 토핑으론 건포도가 추천 메뉴예요.
 미리엄 : 니히히, 전부 맛있어 보여-!
 린 : (하하, 모처럼이니 뭔가 사가지고 가도 좋을 지도.)



Quest Event !!

발생 시기	자유행동일 저녁 시간대
발생 기간	짧음(短)
의뢰자	파블로
기타 사항	

※ 본교사 옥상에 있는 파블로와 대화.

파블로 : 큰일이여, 큰일이여, 큰일이란 말여... 벌써 저녁이 되어부렸어!!
 파블로 : 이대로는 학생회라던가--- 그것만은 사양이여-!!
 미리엄 : 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파블로 : 누, 누군가 했더니 린 교관님과...

파블로 : ... 누구시죠?
 밀리엄 : 아하하, 나는 밀리엄--- 린의 동창생이야.
 린 : 하하, 조금 사정이 생겨서 분교를 안내해주고 있던 참이라서 말야.
 린 : 그런데--- 나라도 상관없다면 상담을 들어줄까?
 린 : 보아하건데 부활동에 대한 것으로 고민하는 거지?
 파블로 : 참말인가요? 그야말로 구세주--
 밀리엄 : 흠음- 부활동인가. 왠지 재미있을 듯하네.
 파블로 : 그렇다곤 해도 지금은 사면초가랄까...
 파블로 : 돌고 돌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란 말이죠.
 린 : 제자리라면...?
 파블로 : 아니... 실은 저는 자타공인 [철도매니아]으로.
 파블로 : 사실은 [철도부]란 걸 하고 싶었는데요--
 동료들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질 않아서.
 파블로 :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되어서 어떻게든 혼자서 부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분교장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는데요...
 파블로 : 그랬더니 첫 마디가[재미없는 녀석이군]이라고 일축되어 버려서...
 린 : 그, 그랬군...
 파블로 : 네... 분교장님 말씀인즉[부활동은 제국인의 여유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따름인데--]
 파블로 : [애당초 특기인 것을 하면 어쩌겠다는 거냐]라는 것 같아요.
 린 : 하하, 그 분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할 듯하다 랄까..
 린 : ---하지만 학생회를 면하고 싶다면 아무튼 대안을 생각해야만 하겠는걸.



밀리엄 : 저기, 저기-- 그럼 조리부는 어때?
 밀리엄 : 나도 했었는데 매우 재미있어!
 밀리엄 : 맛있는 것도 잔뜩 먹을 수 있고 말야♪
 파블로 : 하하, 그렇게 들으니 꽤 매력적이네요.
 파블로 : 그리고 보니 샌디가 요리연구회를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파블로 : 그렇다곤 해도 요리를 만드는 쪽에 전혀 흥미가 없달까.
 밀리엄 :으음-, 그럼 안 되겠네.
 린 : 덧붙여, 지금 검토되고 있는 중인 부활동은 그 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린 : 그 쪽에 참가하는 생각을 안 한 거야?
 파블로 : 네, 뭐...솔직히 말해 어느 부활도 확 와 닿는 게 없달까.

파블로 : 철도 정도의 , 뜨거운 비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린 : 흠, 그런가…
밀리엄 : 니히히, 그건 그렇고 “비트”라고 들으니--
밀리엄 : 왠지 학원제에서의 스테이지가 생각이 나네.
린 : 하하, 뭐, 그럴네.
파블로 : 헤에, 학원제에서 뭔가 했었나요?
린 : 그래, 실은 예전의 VII반에서 연주를 피로한 적이 있어서 말야.
린 : 그것도 록 장르의 곡으로.
파블로 : 차, 참말인가여---
파블로 : 록을 연주해서 피로한다던가 최고로 멋진 거 아임니꺼!
밀리엄 : 니히히, 그치, 그치♪
린 : 흠, 하지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반응이랄까.
린 : 설마 파블로는 록에 흥미가 있는 거야?
파블로 : 네, 뭐. --실은 록을 좋아해서 자주 들곤 해요.
파블로 : 노도(怒濤)의 기세로 혼을 뒤흔들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지기 쉬운 사운드…
파블로 : 어딘지 모르게 열차의 주행음에 통하는 것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린 : 하하, 파블로에게서도 말야.
린 : 하지만 봐, 제대로 있잖아-- 철도 이외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블로 : 옛…?
파블로 : 그, 그럴긴 한데 부활동으로 하면 [취주악부]라는 거죠?
린 : 하하, 별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
린 : 다른 학교라면 몰라도 제2분교는 자주성이 최우선이야.
린 : 구태어 말하자면 [경음부]일려나. 찾으려면 얼마든지 부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파블로 : 과연, 그 말대로네요…
파블로 : 게다가 [경음부]--- 꽤나 흥이 나는 울림이다.
밀리엄 : 응, 응. 확실히 멋있네!
파블로 : ---아자.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쇠뿔도 단김에 빼는거여!
파블로 : 타임 리미트는 오늘 내로-- 다시금 모두에게 돌아다니면서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파블로 : 참말로 고맙습니다. 린 교관님에… 밀리엄씨 었던가여?
린 : 응, 천만에 말씀.
밀리엄 : 아하하, 나는 밀리엄이라고 불러도 돼.
린 : (하지만 지금부터 파블로 혼자서 권유인가… 부활동의 권유, 나도 도와줄까?)

- 부원 모집을 돕는다(部員集めを手伝う) 선택.

린 : 괜찮다면 나도 도와줄까?
린 : 벌써 저녁이고 두 사람으로 나뉘어서 찾는 편이 효율적이겠지.
파블로 : 예, 참말임가…? 억수로 고맙심다!
린 : 하하, 얘기를 꺼낸 건 이쪽이니 최후까지 책임져야지.
린 : 자 그럼,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나뉘까인데…
파블로 : 뭐, 범위가 넓은 것 같은 교내는 제 쪽에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파블로 : 기숙사는 나중에 돌아보기로 하고-- 교관님들은 시내 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린 : 하하, 알았어.
밀리엄 : 그럼, 렛츠 고-!

- 분교 퀘스트 [경음부의 설립(軽音部の立ち上げ)]를 개시! -

리브스 시내 중앙광장 벤치에 있는 발레리와 대화.



발레리 : 후우... 벌써 저녁인가.
 발레리 : 나는 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린 : (주계과의 발레리인가... 그녀도 아직 부활동이 결정되지 않은 듯 보이는데.)
 린 : (...아무튼 물어나 볼까.)
 린 : 야아, 발레리-. 지금 잠시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어?
 발레리 : 슈바르처 교관님...
 발레리 : 과, 누군가요...?
 린 : 응, 뭐 그렇게 묻는 게 당연하지.
 발레리 : 과연... 경음부, 인가요.
 발레리 : 파블로군이 필사적이니 나에게도 참가하라고요?
 발레리 : 교관님은 꽤나 친절하시네요.
 린 : --아니, 물론 어디까지나 네가 좋아할 경우의 이야기야.
 린 : 파블로에겐 미안하지만 그 외에 부활동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금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데?
 린 : 남자라서 말하기가 힘들면 내가 가서 부탁해도 괜찮고.
 발레리 : 그다지 그런 것은...
 밀리엄 : ㅎㅎ, 그럼 한번 해보면 될 텐데.
 린 : 어이, 밀리엄...
 발레리 : 뭐... 흥미자체로 보면 가장 높긴 한데요...
 린 : 해에... 그래?
 발레리 : ...
 발레리 : ...슈바르처 교관님은 북방계 록을 알고 계신가요?
 린 : 뭐... 얘기 정도라면.
 린 : 레미페리아에 노잔브리아, 그리고 쥬라이...
 린 : 대륙서부의 북방전반에서 사랑받고 있는 록 음악의 총칭이었던가.
 린 : 공부가 부족해서 경향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들은 적이 없지만 말야.
 린 : (쥬라이 출신의 "그 녀석"이라면 자세히 알고 있었겠지만...)
 린 : 발레리는 꽤 자세히 아는 거야?
 발레리 : 뭐... 나름대로는요.
 발레리 : ... 게다가 기타도 일단 어느 정도 칠 수 있어요.
 린 : 하하, 그거 더할 나위 없다 알까.
 밀리엄 : 그럼 결정이네♪

발레리 : 뭐...학생회보다는 나올 지도 모르겠네요.
 발레리 : ... 일단 얘기만은 들어보겠어요.
 린 : 하하, 알겠어.
 린 : 흠, 파블로도 슬슬 학원 안을 다 돌아보았을 쯤 인가?
 린 : 잠시 ARCUS II로 연락해볼까.

- 이렇게 파블로에게 연락을 넣어보니 학교 쪽에서도
 부원 후보를 찾은 모양으로--- 다시금 모두 함께
 본교사 옥상에 모이기로 하였다.



린 : 후음, 파블로가 권유한 것은 구스타프였었나.
 린 : 구스타프도 록에 흥미가 있었군?
 구스타프 : 그러네요. 제 집이 있는 아라곤 광산은
 노잔브리아나 쥘라이에도 멀지 않아서...
 구스타프 :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북방계 록을 듣는 사람이
 꽤나 주변에 많은 편이었어요.
 구스타프 : 그렇다곤 해도 약기는 완전 초보지만 입니다만.
 린 : 하하, 뭐 그걸 배우기 위한 부활동이기도 할 테지.
 린 : 덧붙여서 파블로는 연주 할 수 있던가?
 파블로 : 뭐, 경험은 없습다만 손재주는 좋은 편이라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파블로 : 모쪼록 경험자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 : 나는 아직 참가한다고 결정한 건 아닌데...
 파블로 : ---호오, 그럼 발레리는 학생회로 괜찮은 거여?
 발레리 : 그, 그것은 싫은데...
 파블로 : 하하, 그럼 각오를 다지라고!
 구스타프 : 나도 되는 한 폐가 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지.
 발레리 : 후우... 아무래도 이 정도에서 타협해야겠네.
 발레리 : 알았어요, 새삼 나도 정식으로 경음부에 참가하도록 하죠.
 린 : 하하--- 아무래도 결정된 모양이네.
 밀리엄 : 덧붙여 린은 기타 경험자이니까.
 밀리엄 : 무슨 일이 생기면 마구마구 의지해도 돼!>
 파블로 : 과연, 그거 마음 든든하네어.
 린 : 하하, 뭐 어디까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파블로 : 어찌됐건 간에 [경음부의 설립]은 이걸로 성공이여-
파블로 : 두 분도 정말로 고맙습니다여!

- 분교 퀘스트 [경음부의 설립]을 달성! -
- 파블로의 인물 노트 ① 갱신 -

구스타프와 대화.



구스타프 : 후후... 실은 저는 드럼에 흥미가 있어서 말이죠.
구스타프 : 일단 다음번에 스틱만이라도 제도에 사러 가야겠네요.

발레리와 대화.



발레리 : 경험자라는 것에 너무 부탁만 받아도 곤란한데...
발레리 : ...하지만 뭐, 무료함을 달래기엔 딱 좋을 듯하려나.

파블로와 대화.



파블로 : 우선은 발레리가 기타라면 나는 베이스라도 담당해볼까나.
파블로 : 그건 그렇고 [경음부]인가--- 즐거워서 참을 수가 없구만!

※ 분교 기숙사 1층에 있는 남자 목욕탕의 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밀리엄 : 어라, 여기는 뭐야?

린 : 아아, 기숙사의 목욕탕이야.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나뉘어져 있어.

밀리엄 : 옛, 그런 게 있어-?

밀리엄 : 좋다-! 잠깐 들어가 보고 싶을지도!

린 : 으음, 렉터씨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린 : 물은 데워져 있을 테고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을려나?

- 목욕탕에 들어가 땀을 흘린다(風呂に入って汗を流す)

밀리엄 : 앗호, 그럼 함께 오בות이 들어가자-!!

린 : 아니, 그러니까 남녀 별도라니까.



밀리엄 : 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넓고 기분이 좋다 알까-.

밀리엄 : 그 여장군님이 만들게 했다고 했지?

린의 목소리 : 응, 그렇다는 거 같아.

린의 목소리 : 우리들의 제3학생 기숙사는 샤워만 있었으니 조금 신선한 느낌이야.

밀리엄 : 아하하, 그 대신에 유미르에서 마음껏 만끽했지만 말야.

밀리엄 : 양원숭이(히쯔진)들과도 술래잡기 같은 것도 했었고.

린의 목소리 : 하하, 그런 일도 있었지.

린 : 하지만 밀리엄은 임무로 각지를 돌아다니잖아?

린 : 그 외에도 온천이나 목욕탕이나 들어가거나 하진 않는 거야?

밀리엄의 목소리 : 아, 꽤 들어가는데? 요전에도 크레아랑 제도에 있는 스파에도 들어갔고.

밀리엄의 목소리 : 유시스가 있는 곳에 놀러갔을 때도 성관(城館)의 굉장히 큰 목욕탕에도 들어갔었어.

밀리엄의 목소리 : 함께 들어가자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하긴 했지만.

린 : 하하, 그야 그럴 테지. ... 그것보다 조금은 조신함을 가지라고.

밀리엄의 목소리 : 니히히, 괜찮아, 괜찮아.

밀리엄 : 으음, 가능하다면 한번쯤 알(티나)와 함께 들어오고 싶은데.

밀리엄 : 몇 번인가 임무로 함께 해도 그다지 놀지도 못했고.

밀리엄 : 아, 물론 가아와 쿠우도 함께 말야!

린의 목소리 : 그런가... 뭐,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린의 목소리 : 아가트람과 크라우=솔라스는 사이즈면에서 조금 힘들듯하지만.

밀리엄 : 에에-?



밀리엄 : 으음-, 좋은 목욕탕이었어-!
밀리엄 : 기분도 상쾌-! 드럼 시내 순회를 재개해볼까?
린 : 하하, OK.

- 목욕탕에 들어간 것으로 린과 밀리엄의 CP가 100 상승! -
- 밀리엄의 인연포인트 상승! -



Kizuna Event !!

※ 본교사 2층 장서실에 있는 토와와 대화.



토와 : 사자란트주의 자료는, 영차...

토와 : 이동계획도 물론이지만 연습 당일까지
가능한의 준비를 해두어야만 할 거야.

린 : 네... 그다지 시간도 없으니까요.

밀리엄 : 후우, 내가 어떻게든 사전에 파악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토와 : 후후, 괜찮다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 밀리엄.

토와 : 것보다 린과 함께 느긋이 시내를 구경하고 와.

린 : (토와 선배 혼자에게 전부 맡겨만 두기에는...)

- 토와와 함께 보낸다(トワと過ごす) 선택.

린 : 토와 선배, 모처럼이니 저에게도 자료 수집을
돕도록 해주시지 않겠어요?

린 : 연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코 남의 일은 아니니까요.

토와 : 린... 하지만 밀리엄의 안내는 어찌고?

린 : ...조금만 기다려줄래, 밀리엄?

밀리엄 : 니히히, 괜찮아-- 오히려 나도 돕게 해줘!

밀리엄 : 모처럼 왔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싶다고나 할까-

린 : 고마워, 밀리엄. 그런 까닭이니, 괜찮죠?

토와 : 후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신세를 저볼까.

토와 : 리스트를 건네줄 테니 두 사람은
체크되어 있는 책을 나눠서 찾아봐 줄래?

린 : 식운 죽 먹기죠.

밀리엄 : 니히히, 맡겨만 뒤!

- 두 사람은 토와에게서 자료의 목록을 받고
사자란트 관련의 자료를 모어나갔다.



린 : 선배, 반대편의 책장은 수집이 끝났어요.

밀리엄 : 내 쪽도 끝났어-!

토와 : 와아, 고마워 두사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

린 : 하하, 선배의 목록이 정확했던 덕분이에요.

린 : 남은 것은 이 부근의 책장뿐이네요.

밀리엄 : 좋아, 그럼 단숨에---

밀리엄 : 아, 정보국의... 아 그런가. 정시연락이 있었더랬지.

토와 : 아, 괜찮은 거야?

밀리엄 : 괜찮아, 괜찮아. 잠시 나가서 받고 올게.

린 : 뭐, 남은 것은 조금이고 돌이서 마무리를 지어버릴까요.

토와 :응, 그러자.



린 : 그건 그렇고 이 장서실... 책의 구비가 꽤나 풍부한 편이네요.
 린 : 각지의 자료에 군사교존. 제국시보의 백넘버에 오락소설까지
 린 : 보통은 서점에 들여놓지 않는 책도 많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다 할까.
 토와 : 후후, 괜찮다면 린도 마음껏 이용해 주어야 해?
 토와 :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모로
 갖추어 놓은 보람이 있을 테니까.
 린 : 설마... 이곳의 책은 토와 선배가 모은 건가요?
 토와 : 아하하, 어디까지나 목록을 만든 것뿐이야.
 토와 : NGO 활동으로 여러 자료에 눈길을 주었을 테지, 라면서
 분교장님이 부탁을 해서 말야.
 린 : 장서실 전체 분량의 목록 만들기 인가요...
 여전히 터무니없는 사람이랄까.
 린 : 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는 토와 선배도 역시나 대단하네요.
 토와 : 아하하... 그런 대단한 일도 아닌데.
 토와 : ... 이런 연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실전에
 필요한 자료들도 모았을 텐데 말야.
 토와 : 만약 준비가 부족해서 학생들이나
 린에게 위험해지기라도 한다면...



토와 : 그 내전처럼, 누군가가--
 린 : 선배...
 토와 : 미, 미안해. 벌써부터 이렇게 약한 소릴하면 안되는데 말야.
 토와 : 아무튼 지금은 자료수집에 집중, 집중--

앗, 마지막의 자료는 저기에 있네.
 토와 : 으응-, 조금만 더...
 토와 : 선배, 높은 곳은 제가---
 토와 : 까악!?
 린 : ---선배!
 토와 : 리, 린...
 린 :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선배.
 린 : 연습에 어떠한 위험이 있던 그 누구 하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겠어요.
 린 : 제자들도 교관진도--- 제 손이 닿는 범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토와 : 아...
 토와 : 후훗... 응. 기대할게, 린.
 목소리 : 어라-, 뭐하고 있는 거야?
 토와 : 미, 밀리엄... 아니야, 이걸!
 밀리엄 : 아하하, 사이가 좋네-. 좋아, 나도 할래-!!
 린 : 잠, 밀리엄---으왓!!



-그 뒤, 대량의 책 더미에 파묻히게 된 것을 어떻게든 탈출하고 나온 후 각자 나눠서 정리를 끝마치고 나서야 자료 수집을 끝낼 수가 있었다.
 - 토와의 인연포인트 상승! -

토와와 대화.



토와 : 아하하... 그건 그렇고 아가의 일은 학생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랄까...

토와 : 분명 그때는 내가 중심을 잃고선 린에게...

린 : 그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 때도 순식간에...

토와 : 그 이상은 말 안 해도 돼!

린 : 저기...? (...뭔가 잘못 말했나?)

밀리엄 : (니히히, 글썄~?)

다시 대화.



토와 : 으~웅, 이렇게 생각해보니 나도 진보가 없드릴까...

토와 : 하, 하지만 신장도 조금은 커졌으니까!

린 : 하하, 알겠어요.

밀리엄 : 니히히, 덧붙여 나도 1리쥬 커졌거든?



Kizuna Event !!

※ 그라운드에 있는 유우나와 대화.



유우나 : 후우…!!

유우나 : 아앗, 아뿔싸…! 으음, 의외로 어려운 걸.

린 : 유우나,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지?

유우나 : 그, 그냥요… 잠시 라켓의 감촉을 확인하고 있던 것뿐이에요.

유우나 : 이번에 경험자인 루이제에게 배워서 테니스부를 시작했거든요.

린 : 헤에, 테니스인가. 분명 북쪽의 <레미페리아 공국(公國)>에서 성행한 스포츠였던가.

린 : 유우나는 운동신경이 좋은 듯하니 딱 어울릴지도 모르겠군.

유우나 : … 흐, 흥. 감사합니다.

유우나 : 그러고 보니 못 보던 아이를 데리고 계시네요?

유우나 : 것보다 자세히 보니까 귀엽고…! 설마 미아던가 하는 건가요?

린 : 아아, 아니. 그녀는…

밀리엄 : 아, 설마, 너. 린의 제자인 거야?

밀리엄 : 니히히, 나는 밀리엄 오라이온. 알(티나)의 언니로 VII반의 선배라는 입장이 되려나.

유우나 : 선배님…VII반의? 그리고 오라이온은 분명…

유우나 : …저기, 솔직히 무슨 아이죠?

린 : 그게, 말하면 조금 길어 진다랄까.

린 : 유우나도 바쁜 모양이고 다음 기회에 소개하게 해줘.

유우나 : 하아… 뭐 괜찮지만요.

유우나 : 그럼, 저도 자주(自主) 트레이닝이 있어서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유우나 : 자, 다음. 다음.

유우나 : 적어도 부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 품 정도는…!

밀리엄 : (아하하, 열심히 하네.)

린 : (응, 꽤나 의욕이 충만한 모양이야.)

린 :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 유우나와 함께 보낸다(ユウナと過ごす)



린 : 맞아... 그 정도라면 가능하겠군.
 린 : 밀리엄, 미안하지만 잠시 안내를 중단해도 괜찮을까?
 밀리엄 : 예, 괜찮은데...? 린, 설마?
 밀리엄 : 니히히, 정말로 여전히하네-. 좋아, 나도 도와야지!
 린 : 밀리엄... 하하, 고마워.
 유우나 : 야앗!
 유우나 : 흠...!
 유우나 : 우라앗!
 유우나 : 하아, 하아... 조금은 품이 잡히기 시작했다 봐야하나.
 유우나 : 이걸로 부활동의 시작 준비는 됐어...!
 제시카나 루이제와 열심히 활동해야지!
 린 : 수고했어, 유우나.
 유우나 : 어- 어라, 교관님? ... 아직 있었던 건가요?



유우나 : 것보다 그 공들은...!
 밀리엄 : 니히히, 이제야 끝난 모양이네-.
 밀리엄 : 아, 건너편에도 1개 떨어져있네! 잠깐 주워가지고 올게!
 유우나 : 서, 설마... 지금까지 계속 공을 주운건가요...?
 유우나 : 그리고 보니 바구니의 공이 전혀 줄지 않았던 거 같은...
 린 : 하하,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건가. 굉장한 집중력이로군.
 린 : 한동안 지켜보았는데 이 단시간에 꽤나 속달되었던 걸.
 린 : 테니스부도 꽤나 시작이 좋은 거 아니야?
 유우나 : ... 쓰, 쓸데없는 참견이에요.
 유우나 : 아아, 정말. 교관님에게 빛 따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린 : 하하, 그다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린 : 어제도 말했지만 부활동을 결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애당초 힘이 되어줄 생각이었고 밀리엄도 도와주었으니까 말야.
린 : 다시 말해서 교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린 : 아무튼 수고했어. 테니스부, 열심히 하길 바라.
린 : 그리고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엔 주저 말고 불러주었으면 해.
린 : 반드시 도우러 올게 --- 약속이야.
유우나 : 아...



??? : ---크로스벨에는 앞으로 갖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
??? : 그럴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이“벽”을 뛰어넘어 보이겠어.
??? : 유우나, 너도 너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도록 해.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도우러 올게---약속이야.
유우나 : (으... 어, 어쩌서 하필이면 “선배”랑 겹쳐 보이는 거야...!?)
린 : ? 왜 그러지?
유우나 : ~~~~으,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우나 : ...하아, 알겠어요. 교관님을 부를지는 제쳐두고
 부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우나 : 그리고... 공 주워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린 : 하하... 천만에.
밀리엄 : 호에--? 두 사람...
밀리엄 : 니히히, 왜인지는 모르지만 사이가 좋아진 모양이네-?
유우나 : 그, 그렇지는...!
린 : 하하...

- 그 후에 전원이 나뉘어서 창고에 공을 정리해 넣었다 -
- 유우나의 인연 포인트 상승! -

체육 창고 앞에 있는 유우나와 대화.



유우나 : 크, 크흠... 아무튼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유우나 : 것보다... 어째서 이런 사람과 “선배”가...
 린 : 응? 왜 그러지?
 유우나 : 아,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시 대화.



유우나 : 후우... 그건 그렇고 꽤 맘을 흘렀나보네.
 유우나 : 클럽 하우스에서 빨리 샤워라도 하고 돌아 갈까나.

※ 리브스 시내의 베이커리 카페 <루셋트>에 있는 알티나와 대화.

린 : 여기 있었구나, 알티나.
 알티나 : ...네. 당분섭취에 의한 체력회복을 꾀하고 있던 중이에요.
 알티나 : 오늘은 다소 지쳤기에.
 린 : 그리고 보니 제대로 부활동을 정해서 다행이야.
 린 : 레오노라 일행과 수영부... 즐겁게 해나갔으면 좋겠군.
 알티나 : ...뭐, 학원 측의 인가(認可)가 내려진 후의 얘기가 아닐른지.
 린 : 하하... 어찌됐든 결정해서 다행이야.
 밀리엄 : 해에- 부활동을 하는구나? 응, 좋아, 나도 응원할게!
 알티나 : ... 가능한 지속해서 해볼 생각이예요.
 알티나 : 그리고 보니 교관님 쪽의 브리핑은---
 알티나 : ... 지금 목소리는.



밀리엄 : 앗호~, 알♪ 건강히 지냈어-?
 알티나 : ...어째서 그녀가 이곳에?
 린 : 하하, 일 관련해서 와서 말이지.
 린 : 마침 시내를 안내하고 있던 참이었어.
 밀리엄 : 니히히, "알". 오랜만이네-!
 밀리엄 : 작년의 공동임무 이후 일려나? "쿠우"는 건강히 잘 지내~?
 알티나 : ... 네, 오래간만이네요.
 알티나 : "알"은 이제 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밀리엄 : 에- 하지만 알티나라는 건 왠지 발음하기 힘든 걸.
 밀리엄 : 아, 뭐하면 우리들도 "밀"이랑 "가아"라고---
 알티나 : 안 불러요.
 알티나 : 애당초 크라우=솔라스의 호칭도 인정을 한 기억은...
 밀리엄 : 아하하, 관찮잖아. 기억하기 쉽고~.
 린 : (하하... 기쁜 듯하네, 밀리엄.)
 린 : (분명 작년, 몇 번인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듯한데...)
 린 : 네, 여기는 슈바르쳐---
 노인의 목소리 : 그런 건 알고 있어. 일일이 말 안 해도 돼.
 린 : 저기, 설마 슈밋트 박사님인가?
 슈밋트의 목소리 : 브리핑이 끝나서 시간이 남아돌고 있을 테지.
 슈밋트의 목소리 :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아인할 소형 요새>에 오도록 해라.
 린 : 그건 설마 낮에 말씀하셨던...?

밀리엄 : 그럼 당장 가볼래?
 린 : 괜찮은 거야, 밀리엄? 모처럼의 시내 안내를...
 밀리엄 : 아하하, 충분해. 알고고도 만났고.
 밀리엄 : 슈미트 할아버지도 오랜만이니 만나보고 싶고 말야!
 린 : 후우... 뭐, 왠지 중요한 용무였던 모양이니.
 린 : 그럼 준비가 되면--
 알티나 :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린 : 옛...?
 알티나 : “정보국의 계집아이”라고 했다면
 저도 동행하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닌지.
 알티나 : 특별히 인원수의 지정도 없는 듯하고요.
 밀리엄 : 아하하하, 괜찮지 않을까? 함께 가자!, 가자!
 밀리엄 : “알, 밀, 쿠우, 가아”의 최강 과르벳(4중주) 걸성이네~♪
 알티나 : 멋대로 이상한 단체에 가입시키지 말아 주세요.
 린 : 후우... 알았어.
 린 : 소형 요새에 갈 준비가 되면 다시 말을 걸게.
 린 : 빵 케이크도 남아 있는 모양이고. 조금은 느긋이 먹고 기다려줘.
 알티나 : 알겠습니다. 그럼 대기 모드로 이행(移行)합니다.

- 알티나와 합류하면 소형요새에 가게되고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인연 이벤트나 퀘스트, 서브 이벤트가 소멸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알티나와 대화.



알티나 : 저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알티나 : 아인헬 소형 요새에 갈 거면 언제든지 지시를 주세요.
 린 : (준비는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을 듯하군. 그 외에 남겨둔 일은 없었나...?)

- 알티나와 합류하면 소형요새에 가게 되고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인연 이벤트나 퀘스트, 서브 이벤트가 소멸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알티나와 함께 소형요새로 향한다(アルティナと小要塞に向かう)를 선택.

알티나 : 알겠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빵 케이크를 해치우겠습니다.
 밀리엄 : 에헤헤, 뭐하면 내가 도와줘도 되는 데 말야-?
 알티나 : 필요 없어요.
 밀리엄 : 뿌-뿌-, 제제하다-.
 린 : 하하... 알티나도 그렇게 서둘러서 먹을 필요는 없어.

- 그 후 간절한 눈빛의 밀리엄에게 알티나가 한숨을 쉬며 빵 케이크를 나누어 주는 등의 일이 있던 후에...
 준비를 마친 린 일행은 3인으로 소형요새로 향했다.

아인헬 소형 요새(アインヘル小要塞)



티타 : 수고가 많으세요, 린 교관님.
 린 : 응, 수고.
 린 :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버린 모양이라.
 밀리엄 : 약호-, 슈미트 할아버지!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어?
 슈미트 박사 : 여전히 짜증나는 계집아이군... 할아버지 소리는 그만둬.
 슈미트 박사 : ...블랙 래빗(黑兎)도 함께인가.
 알티나 : 네. ...뭔가 문제라도?
 슈미트 박사 : 아니, 테스트엔 지장 없어.
 슈미트 박사 : ...오히려 레벨을 1단계 더 올렸으면 좋았겠군.
 린 : 공장 호출의 이유를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린 : 그녀도 있는 이상, 대충 알 것 같지만요.
 티타 : 아, 아하하... 아마도 상상대로일 거라고 생각해요.
 슈미트 박사 : 알고 있다면 얘기는 빠르지. --따라 와라.

밀리엄 : 호에~, 안은 이렇게 되어있구나.
 알티나 : ... 입학 시(時)의 테스트 시험 이후네요.
 밀리엄 : 헤에, 그런 걸 했었구나?
 린 : ---다시 말해, 일전에 언급한 것의 "계속"을 해라, 라는 건가요?
 슈미트 박사 : 그 말대로다.
 슈미트 박사 : 보름 전에 너희들이 임했던 건 테스트를 겸한 "LV 0"...



슈미트 박사 : 이번엔 보다 실전적으로 구성한 "LV 1"로 구성되어있어.

슈미트 박사 : 전번과 같은 정도라고 우습게 생각했다간
최악의 경우 목숨에까지 지장이 있을 테지.

알티나 : ... <마황병>까지 사용했던 그 때보다도...?

밀리엄 : 해에... 왠지 재미있어 보여!

린 : 기, 기다려 주세요!

린 :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것에 갑자기 도전하라고 하는 것은...!!

슈미트 박사 : 참가의 거부는 자유다.

슈미트 박사 : 하지만 이 실험테스트에 <잣빛 기사>가 참가하는 것...

슈미트 박사 : 그게 내가 분교에 취임하는 것을 수락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

슈미트 박사 :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분교에 머물 이유는 없겠지.

린 : 무슨...

밀리엄 : 아하하, 완전 마이 페이스네-.

티타 : 고, 곤란해요, 박사님~! 기갑병 교련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티타 : 지금 박사님이 없어지면...!

슈미트 박사 : 흥, 내가 알 바 아니야.

슈미트 박사 : ---<특별 커리큘럼>에 관해서는
이미 이쪽의 귀에도 들어와 있어.

슈미트 박사 : 지금 이들에 ARCUS II의 신기능에 익숙해져두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텐데?

린 : ...그건...

알티나 : ...?

티타 : 저기...?

밀리엄 : 으음-, 분명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익숙해져서 손해 볼 건 없을 지도-.

밀리엄 : 괜찮아, 린에게는 우리들이 있잖아!

밀리엄 : 그치, 알?

알티나 : ...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동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알티나 : 애당초 교관님의 서포트는 제 역할이니까요.

린 : 밀리엄, 알티나...

린 : ...알겠습니다. 테스트에 참가하도록 하지요.

린 : 두 사람 모두, 부디 힘을 빌려줘.

밀리엄 : 물론이지!

알티나 : 알겠습니다.



슈밋트 박사 : 흥, 잡담을 너무 했군. 공장 테스트를 개시한다.
슈밋트 박사 : 안에 엘리베이터를 준비해두었다.
슈밋트 박사 : 그걸 사용해서 개시 시점으로 가도록 해라.
티타 : ARCUS II의 조정이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Side Event !!

티타와 대화.



티타 : ARCUS II의 조정이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티타 : 저기, 건투하시길 빌겠습니다…!!

슈밋트 박사와 대화.

슈밋트 박사 : ... 잡담은 끝이다.

슈밋트 박사 : 안쪽의 엘리베이터를 써서 공장 테스트를 하러 가라.

※ 안쪽의 단말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저 조작판으로 테스트 개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군.

밀리엄 : 으음, 왠지 “구교사(旧校舍)”를 떠올리게 되네-

밀리엄 : 니히히, 또 이렇게 린과 협력할 수가 있어서 기쁠지도.

알티나 : (“기쁘다”...)

린 : 하하, 생각에 따라선 그렇게도 말할 수 있나.

린 : 좋아---준비가 되었으면 공장 올라가 보자.

밀리엄 : 오우-

알티나 : ... 알겠습니다.

단말기를 조사한 후 소형요새 LV1의 공략을 개시한다(小要塞LV1の攻略を開始する)를 선택.

밀리엄 : 호에~, 이게 요새의 안이구나.

알티나 : ... 올라왔네요.

린 : 응, 전에는 지하에서 개시를 했을 터야.

아인헬 소형 요새 LV 1

린 : ... 아무래도 내부 구조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모양이야.

린 : 자유자재로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밀리엄 : 해에, 슈밋트 할아버지도 꽤나 하는 걸!

밀리엄 : 후흥, 의욕이 넘치기 시작했어!

슈밋트의 목소리 : --전번과 마찬가지로 최종지점을 향해라.

슈밋트의 목소리 : 또한 기신의 사용은 계속해서 금지로 한다.

모쪼록 정신을 놓지말고 진행하도록.

티타의 목소리 :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네비게이트를 할게요!

티타의 목소리 : 여러분, 부디 힘을 내주세요!

린 : 그래...!

린 : 밀리엄, 알티나, 준비를!

밀리엄 : 가아!!

알티나 : 클라우=솔라스

아가트람 : Ж“п з г к

클라우=솔라스 : у'ф з ъ к

린 : 아가트람, 오랜만이구나. 클라우=솔라스도 잘 부탁해.



린 : 간다--- 아인헬 소형 요새 LV1의 공략을 개시한다!

밀리엄 : OK, 단숨에 해치우자-

알티나 : 가급적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죠.

밀리엄 : 그리고 보니--- 알은 오더를 사용할 수 있던가?

알티나 :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용 방법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알티나 : 이것도 좋은 기회이니 시험해보도록 하지요.

밀리엄 : 니히히, 그럼 나도 해금해둘까나.

- 알티나의 오더 [노와르 크레스트(ノワールクレスト)]를 쓸 수 있게 되었다.

- 밀리엄의 오더 [화이트 데코레이션(ホワイトデコレーション)]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린 : (하하, 두 사람 다 의욕이 넘치는 걸. 나도 질 수는 없겠어.)

린 : (팔엽일도류(八葉一刀流) 이형(二の型), <질풍(疾風)> ---
오랜만에 써보도록 할까.)

- 린이 크래프트 [질풍(疾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Check Point !!

던전은 단층의 개폐구조. 거의 일방통행이므로 길을 따라 쪽 나가도록 하자. 이벤트 전투가 2번 벌어지지만 전투에 어려움은 없다. 통로의 끝 지점에 단말기를 조사해 셔터를 모두 오픈하면 던전 가장 안쪽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시작 전 독 방지 약세나 상태회복 아츠를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던전 내의 아이템

- ▶ 에어 스트라이크 R(エアストライクR)
- ▶ 실버피어스(シルバーピアス)
- ▶ 세피스 7종 뭉치 x 50
- ▶ 밀리엄의 외형템 노란색 머리(イエローヘア・ミリアム)
- ▶ 크레스트R(クレストR)



Event Chat.

밀리엄으로 길을 막는 기둥을 제거 시에 발생.



밀리엄 : 한 건 해결!
린 : 하하...민음직스럽네.



Event Chat.



밀리엄 : 어라, 셔터다.
 티타 : 네, 앞으로 진행해 나가려면 대응되는 스위치를
 찾아서 작동해주세요.

※ 달린 셔터를 우회해서 던전 안쪽으로 어느 정도 나아가면 이벤트 전투 발생.



독벙플라이어(ドグネックフライヤー) x 7

ドグネックフライヤー Lv 8 HP 474 / 1635 EXP 24 入手セブス 1 0 0 4 0 1 0 2 入手アイテム 魔獣の粉末 キュリアの薬 閉鎖空間に巣食う昆虫型魔獣。群れを成して羽音を響かせ、高強りの侵入者に襲い掛かる。		体勢崩し有効度 物★★★ 突★★★ 射★★★ 剛★★★	
魔法属性有効率 炎 80 氷 100 雷 180 風 120		状態変化有効率 毒 200 炎焼 50 凍結 100 目くら 200 沈黙 50 痺れ 200 睡眠 50 即死 50 睡眠 50 幻覚 50 炎傷 100 炎延 150 凍結 200 凍結 50 石化 100 重力下 200	

http://SuguHistory.com/

비행형 몬스터라 근접공격이 MISS가 나기 쉬운 편이다.
 독공격을 꽤 자주 하므로 독방지 악세서리를 장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린 : 후우, 강하네... 괜찮아, 두사람 모두?
 알티나 :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밀리엄 : 응, 나도 괜찮아!
 밀리엄 : 린도 알도 있고 오히려 즐겁다고나 할까.
 알티나 : ... 즐겁다...
 밀리엄 : 니히히, 어느 정도는 슈밋트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해도 되려나?
 린 :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고 보는데...
 린 : 뭐, 두 사람이 있어줘서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
 린 : 솔직히 전투에서도 그렇게까지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밀리엄 : 에헤헤, 이래봐도 자매 같은 거니까 말야~.
 알티나 : ...뭐, 사양적으로는 동기하기가 쉬운 것은 당연한 게 아닐지.
 알티나 : “형식 번호”도 하나 차이구요.
 알티나 : 형식번호 Oz74, <블랙 래빗> 알티나---
 알티나 : 지금부터 추격을 개시합니다.
 밀리엄 : 아, 정말로 하나 차이네.
 밀리엄 : 그럼, 간다-! 가아!
 린 : ...밀리엄, 알티나.
 린 : 너희들과의 인연도 길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밀리엄 : 에...?
 알티나 : 린 교관님...?
 린 : 두 사람의 출신이 <검은 공방>이라는 정체불명의 장소인 건 알고 있어.
 린 : 그것에서 살았던 기억은 지워지고 정보국에 넘겨졌다는 것도...
 린 : <전술각>이라는 불가사의한 무장과 동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밀리엄 : 아하하... 엄밀히는 인간이 아닌 것도?
 린 : ...
 알티나 :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비슷한 발언은 몇 번이나 했었네요.



알티나 : 확실히 말해, 우리들은 인조인간(호문클루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밀리엄 : 그렇다곤 해도 유전자는 인간과는 거의 다를 게 없는 모양이지만 말야.

밀리엄 : 음- 그런 거 치곤 키가 전혀 크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알티나 : 그건 동의해요. ...뭐 저에게는 아직 성장의 가능성이 남겨져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밀리엄 : 으음, 나도 지지 않는다고-

린 : (...어렵פות이 눈치 챘던 일이고... 그녀들에게서도 년지시 들었던 얘기야.)

린 : (하지만 <검은 공방>----“결사”를 배반하고 내전의
 마지막엔 “그”에게 장악당한 조직)



린 : (“요청”으로 각지에 출장을 갔을 때도 조사는 했지만
 결국 아무 단서도 잡질 못 했어...)

린 : (기억을 제거당한 그녀들은 물론, 렉터 소령님조차 아무 것도 모르는 듯해.)
 린 : (대체 어떤... 무슨 목적으로 밀리엄이나 알티아를?)
 밀리엄 : 어이, 린--!!
 밀리엄 : 뭐야-, 뭘 멍하니 있는 거야-?
 알티나 : ...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가요? 그럼, 일단 잠시 휴식을---
 린 : 하하,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린 : ... 밀리엄은 밀리엄이고 알티나가 알티나인 건 애당초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말야.
 알티나 : ???
 밀리엄 : 아하하, 린은 뭐 당연한 얘길 하고 있는 거야-.
 밀리엄 : 에헤헤... 응, 하지만 고마워!
 린 : 하하... 그거야말로 감사 인사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
 알티나 : ... 테스트 평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문제가 없다면 탐색을 속행하도록 하지요.
 린 : 그래, 어서 가자.
 밀리엄 : 새삼스럽게 “렛츠- 고”네-!!



Event Chat.

높은 곳에 있는 상자를 열면 발생.



밀리엄 : 보물 깃! 돌아갈 땐 뛰어내려 볼까.

※ 이벤트 후에 다시 나아가다보면 던전의 중반쯤 온 시점에서 이벤트 전투 발생.



Event Battle!!

그라스도로메(グラスドローメ) x 6

グラスドローメ

Lv 8
HP 797 / 1074
EXP 12

入手セビス
0 0 0 3
0 0 1 1

入手アイテム
魔獣のゼラチン
E.P.チャージ1

暗く湿気のある場所を好む
プニプニとした軟体魔獣。
体内から毒力を生み出し
風属性のアーツを発動する。

体弱耐し有効度
物★★★★ 射★★★★ 技★★★★

魔法属性有効率
炎 80
氷 140
雷 200
風 140

状態変化有効率
毒 50 気絶 100
狂化 100 睡眠 50
封魔 100 凍結 50
閉鎖 100 即死 50
強制 150 沈黙 150
炎傷 100 沈黙 50
凍結 100 沈黙 50
石化 50 重力低下 50

キャラ回転

<http://suyu.hi5tary.com/>

앞서 이벤트 전투와 마찬가지로 물리공격보단 아츠 공격이 유용한 상대.
회복 아츠를 사용하니 범위 공격 + 집중공격으로 빠르게 처리하자.



린 : 좋아... 어떻게든 돌파했다.

알티나 : 후우...

밀리엄 : 괜찮아, 알?

밀리엄 : 피곤하면 말해. 이 언니가 업어줄 테니까!

알티나 : ... 괜찮습니다.

알티나 : 그, “여동생” 취급은 이제 그만 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밀리엄 : 으음-, 하지만 실제로 여동생인데?

밀리엄 : 형식번호도 내가 <Oz73>이고 알은 <OZ74>잖아?

알티나 : 그렇다면 오히려 더 그렇죠.

알티나 : 스펙적으로도 “최신형”의 제 쪽이 뛰어날 테고요.

밀리엄 : 뿌우, 말했겠다-?

린 : ...그런데 그 “Oz”라는 것은 두 사람의 형식번호라는 얘기 말인데.

린 :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고 있어?

밀리엄 : 으음, 미안하지만 “출하”시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번호라는 것뿐일려나?

밀리엄 : 린도 분명 아버지께서 주웠을 때 이름 밖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었지?

린 : 아아... 그리고 보니 그랬었어.

린 : ...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름뿐이었지만 평범히 말한 기억도 있고
5살 나름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린 : 하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고...
하하, 분명 두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네.

밀리엄 : 응-, 응-

알티나 : ... 생각해보니 저도 2년 전, 루파스 경의 밑에서 각성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일반상식은 가지고 있었네요.



알티나 : 그 후, 각종세력상황을 배운 다음에 귀족연합의 위장공작을 개시하였습니다만.

린 : 그런가... 밀리엄의 경우는 어때?

밀리엄 : 나는 5년 전에 눈을 뜬 때에는 아저씨와 크레아, 렉터가 있었어.

오즈본 : ---눈을 뜬 기분은 어떤가? "밀리엄 오라이온"군.

오즈본 : 너를 새로운 <아이들>로 받아들이지. 우선은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로 배우도록 해--

밀리엄 : 하지만 알처럼 금방 임무는 하지 않고 공부를 했었는데.

밀리엄 : 그 의미론 크레아와 렉터는 내 가정교사이기도 한 걸까나?

린 : 과연...

린 : (철형의 아이들... 이라고는 하나 알티나와는 꽤나 상황이 다르군.)

알티나 : ... <스캐어 크로우>는 제쳐두고 <아이언 메이든>에게 배우면서
그러한 성격이 된 건가요?

밀리엄 : 응, 눈을 뜬 때와 비교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밀리엄 : 웬지 최근, 크레아에게서도 렉터에게서도 "변했다"던가 듣는단 말이지-.

린 : 그런가...

알티나 : ...

티타의 목소리 : 저기, 저기, 여러분, 괜찮으세요?

티타의 목소리 : 서, 설마 다치신 건...?

린 : 아아, 미안해! 조금 얘기를 한 것뿐이야!

슈밋트의 목소리 : 흥, 테스트 중에 수다라니 태평하기도 하군.

슈밋트의 목소리 : 휴식이 충분하면 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해.



밀리엄 : 아하하, 혼나버렸네.
 린 : 이런, 이런... 아무튼 탐색을 계속하자.
 린 : 꽤나 진행해 왔다고는 생각하지만 방식은 하지 않고 가자. 밀리엄, 알티나.
 밀리엄 : 오케이-!
 알티나 : ...알겠습니다.



알티나 : (... 기본 스펙은 “최신”이라도 역시 경험치의 차이는 있을 듯합니다.)
 알티나 : (하지만 단순한 전투력에 있어서도 질 수는 없습니다...)
 알티나 : (크라우=솔라스와의 새로운 크래프트-- 슬슬 실전투입 하고 싶네요.)

- 알티나의 인물노트 ①갱신 -



Event Chat.

셔터의 제어장치를 해제하면 발생.



티타 : 여러분, 이제 곧 종점인데요--

티타 : 어라, 박사님? 왜 그러시죠?

슈밋트 박사 : 흥, 아무 것도 아니야. 오퍼레이션에 집중해라.

린 : (? 뭐지...?)

아인헬 소형 요새 L1 가장 안쪽

※ 가장 안쪽의 특수한 회복장치를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알티나 : 이건... 불가사의한 힘이 느껴지네요.
린 : 그래, 회복장치 중에서도 특수한 타입인 듯한.
밀리엄 : 니히히, 왠지 편리할 듯하네.

이 장치는 [특수회복장치]입니다. 여기서는 HP,EP 회복 이외에
퀴츠의 합성, 퀴츠 무기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는 각종 삼 기능을 경비한
[최상특수회복장치(最上特殊装置)]가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세이브를 한 후 가장 안쪽의 공간에 들어서면 이벤트 발생.

알티나 : 막다른 곳...?
린 : 아무래도 여기가 최종지점인 모양이군.
밀리엄 : 아하하, 도착-!
밀리엄 : 음-, 재미있었는데 슈밋트 할아버지치고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거 같은데?
린 : 아니--- 물러서 두 사람 모두!!



밀리엄 : 우왓, 저거 뭐야!?
린 : 역시인가...!
티타의 목소리 : 바, 박사님!? 그 마수는 LV1용이 아니에요~!
슈밋트 박사의 목소리 : 흥, 바라는 대로 “재미”있게 해준 것뿐이야.
슈밋트 박사의 목소리 : 아기토끼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을 테지.
린 : 쿝, 말도 없이...!
알티나 : 일전의 “마황병”에 맞먹을 듯하네요...(… 시험해보기엔 절호의 상대네요.)
밀리엄 : 당연, 정면 돌파밖에 없지! 그치, 린!
린 : ...응, 그렇군!
린 : 전력을 다해서 간다, 밀리엄, 알티나!!

- 알티나의 스크래프트 [알카디스 기어]를 사용가능! -



Event Battle!!

즈오우(ズオウ)

즈오우		체통량시有効度	
Lv	10	物***	文***
HP	10558 / 11807	射***	剛***
EXP	448		
入手セビス		魔法属性有効率	
20	17	炎	100
18	21	氷	90
		雷	120
		風	160
入手アイテム		状態変化有効率	
ニードルショット SR		毒	5
共喰いを続けた魔獣の醜態な成れの果て。本能の命ずるままに暴り狂う。		炎焼	10
		氷凍結	5
		雷感電	5
		風感風	5
		毒麻痺	0
		炎炎焼	0
		氷氷凍結	0
		雷雷感電	0
		風風感風	0
		毒毒	0
		炎炎力低下	5

http://suyu.history.com/

사용하는 아츠 & 크래프트 : 포이즌브레스(ポイズンブレス), 베놈프레이밍(ベノムフレイム), 오가하울(オーガハウール)

유리한 오더 : 화이트 데코레이션(ホワイトデコレーション)

전투전에 독방지 장비와 함께 TACTICS 항목에서 꼭 파티 멤버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 놓도록 하자. 기본 공격이 범위공격이라 웅기중기 모여있으면 회복만하다가 당할 수가 있다. 오더는 밀리엄의 화이트 데코레이션이 최적. 초반엔 린의 방어 오더로 대처하다가 중반 즈오우의 화력이 강해지는 시점부터 쓰면 OK. 아츠 베놈 프레이밍은 범위 공격이므로 빠르게 해제 해주는 걸 추천.



알티나 : ...목표의 침묵을 확인.
밀리엄 : 예에~! 완전승리!!
밀리엄 : ----것보다 알이랑 쿠우 굉장한걸!?
린 : 그래, 작년까지 사용했던 크래프트량은 다른 거 같은데?
알티나 : 뭐, 이래봐도 “최신형”이므로.
알티나 : ...실전 레벨이 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만.
밀리엄 : 아하하, 그럴구나~.
린 : ...용케 힘냈구나.
린 : 밀리엄도, 아가트람도 크라우=솔라스고 고마워.
밀리엄 : 니히히, 천만의 말씀♪
아가트람 : X::ërM
클라우=솔라스 : Я : ÿrK
티타 : 하아, 다행이다... 여러분 괜찮으신 모양이네요?
슈밋트 박사의 목소리 : 흥, 그럭저럭한 데이터를 얻었나.
----이걸로 오늘의 테스트를 종료한다.
슈밋트 박사의 목소리 : 입구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오도록 해.
티타의 목소리 : 앗, 박사님? --저기, 저기. 돌아오실 때도 조심하세요!
린 : 후우... 정말 저 사람은.
알티나 : ...다소 지쳤습니다. 지시대로 돌아가도록 하지요.
린 : 그래, 그러자.
밀리엄 : 아하하, 역시 언니가 업어줄까?
알티나 : 됐어요.

※ 엘리베이터의 문을 조사하면 이벤트 발생.

린 : 슈밋트 박사와 티타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밀리엄 : 아아, 이걸로 끝인가.
알티나 : 남겨둔 것이 없다면 이대로 나가죠.
슈밋트 박사 : 이제야 돌아왔다.
티타 : 수고하셨습니다요, 여러분! 저기, 다치거나 하진 않으신 건가요?
린 : 응, 보다시피 전원 무사해.
린 : 알티나와 밀리엄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
밀리엄 : 니히히, 괜찮아. 괜찮아. 나도 재미있었고~.
알티나 : ...뭐, 최신에 전술각을 2대나 투입한다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른지.
티타 : 하아, 다행이에요...
티타 : 하지만 전술각인가요... 요 전의 테스트에서도 보긴 했었는데요.
티타 : 저기, 저기. 괜찮다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밀리엄 : 응, 괜찮은데--? --가아--!!
알티나 : 후우, 당신은 정말...



티타 : 와, 대단해, 대단해요...! 이런 구조로 되어있구나.
티타 : 헤에~ 잘 보니 왠지 도자기 같은 신기한 질감이네요.
티타 : 으음, 하지만 수신 디바이스 같은건... 이거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밀리엄 : 아하하, 그건 나 스스로도 잘 모른단 말이지-.
린 : 뭐랄까... 그녀도 조금 유별난 구석이 있네요.
슈밋트 박사 : 흥, 그 발명도락가(랏셀)의 핏줄이니까.
슈밋트 박사 : 그건 그렇고-- 나름대로의 반응은 있던 듯 보인다만?
린 : ...네, 덕분에 말이지.
린 : 이후는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와도 상관없나요?
슈밋트 박사 : 멋대로 해, 나는 테스트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아.
슈밋트 박사 : 뭐, 특별 커리큘럼을 마치고도 "다음"이 있다면, 말이지만.
린 : ---있을 겁니다, 절대로.
슈밋트 박사 : 흥... 그럼 즐겁게 기대하도록 하지.
린 : 죄송합니다. 좀 받겠습니다. ---네, 슈바르처---
렉터의 목소리 : 이런, 이런. 이제야 연결됐군.
린 : 그 목소리는 렉터 소령님...? 왜 그러시죠?
렉터의 목소리 : 왜 그러시죠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렉터의 목소리 : 술술 밀리엄을 회수해가고 싶은데 말이지.
린 : 앗... 죄송합니다! 소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렉터의 목소리 : 크크,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만.
렉터의 목소리 : 마침 역으로 향하던 참이야. 그쪽에서 보기로 하자고?
린 : 알겠습니다. 지금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엄 : 아, 설마 렉터에게서 온 거야?



미리엄 : 아하하, 그러고 보니 이 후엔 크로이첸 주로 가는 거였던가?
 알티나 : 저에게 묻지 말주세요.
 린 :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만 가겠습니다. 어서 가자, 두 사람.
 티타 : 하아, 좀 더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슈밋트 박사 : ...<검은 공방>인가.
 티타 : 박사님?
 슈밋트 박사 : 흥, 아무 것도 아니야.
 슈밋트 박사 : 나는 요번의 데이터를 통합할 테니 너는 뒷정리를 하고 와라.
 티타 : 아, 네...!

미리엄 : 응, 정말 즐거웠어-!



밀리엄 : 에헤헤— 하지만 왠지 여러모로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네-.
 린 : 뭐, 그렇지… 우리들이 있던 <VII반>이상일지도 몰라.
 린 : 하하, 생각할수록 터무니도 없는 곳에 취직 해버렸구나 하고 생각해.
 밀리엄 : 아하하,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야-.
 밀리엄 : 뭐, 그래도 다른 모두에 지지 않을 정도로 바쁜 것은 확실할지도 모르겠네-.
 린 : 그러고보니… 프리핑에서 놀드의 얘기가 나왔는데.
 린 : 역시 관계가 있는 거야? 최근 가이우스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것과.
 밀리엄 : 아, 역시 린 쪽에서도 연락을 취하지 못했구나?
 밀리엄 : 응, 일단 내 쪽에서도 조사는 해봤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말야-.
 린 : 그런가… 걱정인걸.
 린 : 왠지 모르게 가이우스라면 괜찮을 거라고도 생각되긴 하지만.
 밀리엄 : 아하하, 그러네.
 밀리엄 : 다음 번에 유시스를 만나게 되면 그 쪽에도 물어 볼게.
 린 : 아아, 잘 부탁해.



밀리엄 : 하, 그건 그렇고 알이 부러워-. VII반에다가 린이 교관이라니 말야-.
 밀리엄 : 니히히, 이참에 나도 다시 전학을 와 버릴까나-?
 알티나 : 부디, 그만둬주세요.
 알티나 : ...
 린 : ...알티나?
 밀리엄 : 응- 왜 그래? 속이라도 아픈 거야?
 알티나 :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청년의 목소리 : 여, 수고.

밀리엄 : 앗호- 렉터! 기다렸지-!

린 : 수고하셨습니다. 소령님.

렉터 소령 : 그쪽이야말로 베이비시터, 수고했어.

애쉬 : 흥...

린 : (...?)

알티나 : 오랜만이네요, <스케어 크로우>

렉터 소령 : 뭐야, <블랙 래빗>. 너도 함께였나.

렉터 소령 : 하하, 아무래도 고갱이들에게 휘둘러 다녔던 모양이네?

린 : 아아, 이니요...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정도라서.

린 : 열차 시간은 괜찮은가요?

렉터 소령 : 응, 마침 크로이첸 주행 열차가 출발할 참이야.

렉터 소령 : 아쉽지만 우리들은 슬슬 물러가도록 할게.

밀리엄 : 에-, 벌써?

밀리엄 : 으음, 별수 없나.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밀리엄 : 그럼, 또 보자, 두 사람 모두!!

밀리엄 : 알, 내 대신에 정신 바짝 차리고 린을 봐두도록 해!

밀리엄 : 린도 알을 잘 부탁해!

알티나 : ... 말씀 안하셔도 이것도 임무니까요.

린 : 하하... 여러모로 큰일이겠지만 밀리엄도 열심히 해.

밀리엄 : 니히히, OK.

렉터 소령 : 그럼, 간다.

밀리엄 : 린---!!



밀리엄 : 이번엔 다른 모두와 다함께 만나자!!
 린 : 아...
 린 : 응--- 물론이지!!
 린 : ...가버렸나.
 린 : 하하, 왠지 순식간에 조용해졌는걸.
 알티나 : ...
 린 : 알티나?



알티나 : ... 저와 그녀는 정말로 “같은” 걸까요?
 알티나 : 형식번호는 제가 최신... 적어도 기본적인 스펙으로는
 뒤쳐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알티나 : 하지만, 어째서 저렇게...

알티나 : ...

린 : 알티나...

린 : 하하... 밀리엄은 밀리엄. 알티나는 알티나야.

린 : 너에게도 언젠가 분명 그걸 알 수 있을 날이 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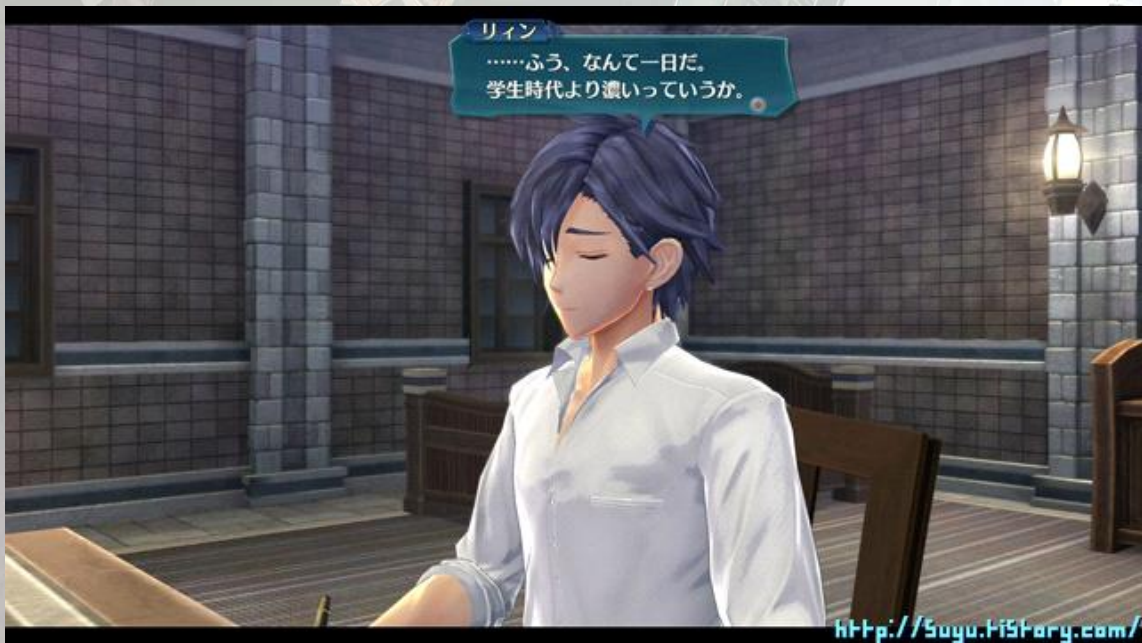
린 : 알티나가 알티나다워 질 수 있는 날이.



알티나 : 저, 답게 된다구요...?

알티나 : 어려운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정말로.

분교 기숙사 3층 린의 방



린 : ...후우, 이 정도면 됐다.

린 : 내일의 기갑병 훈련과 특별 연습을 위한 준비…
 린 : 너무 고심해봤자 오히려 역효과고 이 정도로 해둘까.
 린 : …후우, 무슨 하루인지. 학생시절 보다 총만하다 할까.
 린 : 하지만 설마 로지스나 뭉크도 이 마을에 와 있을 줄이야.
 린 : 그리고 보니--
 린 : … 뭉크가 말했었지, 놀랄만한 방송이 시작된다고.
 린 : 슬슬 시간인 모양이고 모처럼 이니 들어 볼까.
 린 : 이런… 마침 시작하는 참이었나?
 린 : (어라, 이 곡은--)
 ??? : 청취자 여러분, 좋은 밤이네요.
 ??? : 트리스타 방송이 4월 16일, 오후 9시 현재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 : 1년 반 만인가요? 토크쇼 <어벤트 타임(저녁의 시간)>,
 오늘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린 : ----!!!
 ??? : 처음이신 분도 있을 테니 새삼스럽지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미스티 : 본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미스티”라고 합니다.
 미스티 : 1년 반 전, 갖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종료하고 말았던 본 방송…
 미스티 : 여러분의 뜨거운 요망이 있어서 이렇게 재개하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스티 : 학생이었던 청취자 여러분들은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었을까나?
 미스티 : 신입생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새삼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린 : (워, 워, 워…)
 린 : (워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미스티 : --그럼 4월도 중반, 라이노의 하나도 한창 흐드러질 때네요.
 미스티 : 지금 수록중인 장소는 이전 수록했던 트리스타와 비교해서
 라이노 나무는 많지는 않지만…
 미스티 : 그럴더라도 새로운 만남이나 그리운 사람들과의 재회 등도
 예감을 하게 만드는 계절이네요.
 미스티 : 여러분들도 바쁜 신(新)생활 속에서도 고개를 돌려 마을 곳곳에
 흐드러진 하얀 꽃잎들에 눈을 맞추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스티 : 그럼 곧장, 방송 재개를 기념해서 각지의 청취자에게서 온 엽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스티 : 우선은 센트 아크에 사는 라디오네임 미스 고서점(古書店)씨에게서---

리브스 시내 라디오 방송국 <트리스타 방송>



린 : ...수록(収録) 장소를 알 수가 없다고!?

몽크 : 아하하... 나 역시도 놀랐지만 말야.

몽크 : 저번 달, 미스티에게서 마이켈 디렉터에게 연락이 있었던듯해.

몽크 : 그래서 청취자의 편지를 미스티씨에게 보내면 녹음한 토크를 방송한다---

몽크 : 이런 형태로 괜찮다면 이벤트 타임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가 된 거 같아.

몽크 : 꽤나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많은 수의 팬이 기다리고 있으니 방송국으로서도 각오를 다진 모양이야.

린 : 너무 막무가내잖아...

린 : 그럼 미스티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몽크 : 응, 각지를 전전하고 있는 모양이니

그런 방법으로 밖엔 무리라는 것 같아.

몽크 : 하지만, 너도 들었지!? 역시 최고야. 미스티씨의 토크는!

린 : 응, 블랭크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말까...

린 : 유머도 워드도 있고 진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무심코 듣고는 이야기에 흘러버렸다랄까...

린 : ---그게 아니라 어쩌서 거주지도 모르면서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한 거지?

몽크 : 제도의 종합우체국에 사서함을 준비해둔 모양이야.

몽크 : 그 사서함에 편지를 보내면 5일 후 정도에

토크가 들어간 데이터가 도착하는 모양이야.

몽크 : 그러고 보니 당국에 방송을 신청했을 때, 다소 난색을 표했다는 것 같던데...

몽크 : 이렇게 무사히 처음 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겠지?

리브스 시내

린 : 이 표시는---

린 : 렉터 소령님...!

렉터 소령 : 여어, 5시간 만인가?

렉터 소령 : 아까 전 방송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둘까 해서 말야.

린 : <어벤트 타임>…

린 : 어째서 그 방송이--- 크로틸다씨의 단서를
정보국에선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렉터 소령 : 아니~, 역시나 마녀답게 감쪽같아.

렉터 소령 : 아저씨가 계획을 가로챈 탓에 도망친 <결사>의 마녀…



렉터 소령 : 설마 당당하게 제국에 돌아와서 다이오의 토크 방송까지 시작할 줄이야.

렉터 소령 : 알게 모르게 좋아했던 방송이라 개인적으로는 기쁘지만.

린 : 동감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린 : 당연히 정보국 쪽에서도 조사를…?

렉터 소령 : 그래, 종합우체국의 사서함에 보내진 편지를 감시하도록 시켰어.

렉터 소령 : 하지만---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어느 새인가 사서함에서
편지다발이 사라져 버렸어.

렉터 소령 : 토크를 녹음한 기억결정(미디어 쿼츠)도 마찬가지야.

돌연 배송용 사서함에 나타났고, 요금도 처리가 된 상태였어.

렉터 소령 : 나 참, 문자대로의 의미로 어떤 “마법”을 쓴 건지.

린 : …그렇군요. 그런 경위가 있었던 건가요.

렉터 소령 : 방송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개를 기다리고 있던
팬도 많으니 잘못하면 반감을 살 수 있겠지.

렉터 소령 : 그 부분에서 정보국으로서는 내용 그 자체는 체크하면서
한동안 방치해두기로 했어.

렉터 소령 : 뭐, 너도 뭔가 알게 되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해주면 고맙겠어.

렉터 소령 : 구(舊)VII반의 아가씨는 “마녀님”의 동향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야.

린 : 아---

린 : 하아…기대해도 말이지.

린 : …에마하고는 편지를 주고받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린 : 지금은 세리노와 제국 가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린 : (크로틸다씨인가… 적이었고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엔 VII반에 협력을 해주었어.)

린 : (“그 녀석”의 최후 역시 진심으로 슬퍼하고, 화를 내어 주었고…)

린 : (아무리 <결사>의 일원이라고 해도 정보국에 팔아넘기는 짓은 하고 싶지 않고
애당초 불가능하겠지.)

린 : (…것보다 단순한 변덕이나 장난의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



<http://suyu.history.com/>

린 : <어벤트 타임>--- 당분간 정기적으로 듣도록 할까.

--- 4월 16일 자유행동일 종료 -----